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碩士學位論文

『주홍글자』에 나타난 죄의 양상과 구원의 길

指導敎授　　卞 鐘 民

濟州大學校 敎育大學院

英語敎育專攻

金　　貞　　美

2007年　2月

『주홍글자』에 나타난 죄의 양상과 구원의 길

指導敎授　　卞 鐘 民

이 論文을 敎育學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6年 12月

濟州大學校 敎育大學院 英語敎育專攻

提出者　金 貞 美

金貞美의 敎育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2007年 2月

審査委員長 _____ 印

審 査 委 員 _____ 印

審 査 委 員 _____ 印

<국문초록>

『주홍글자』에 나타난 죄의 양상과 구원의 길

金 貞 美

濟州大學校 敎育大學院 英語敎育專攻

指導敎授 卞 鐘 民

본 연구는 『주홍글자』에 나타난 주요등장인물들의 죄의 양상과 그로 인한 내면적 갈등과 심리변화의 과정을 살펴보고, 고통과 회개를 통해 구원에 이르는 모습을 청교도주의 및 호손의 도덕관과 연계하여 고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호손은 전통적인 청교도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항상 청교도주의가 엄격하고 냉혹하며 제한적이라고 생각하였으며, 엄격한 청교도 사회의 비정함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그의 작품 배경은 뉴잉글랜드이며, 그는 캘빈주의를 신봉하는 뉴잉글랜드 조상에 대해 죄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대부분의 작품 주제는 신학적 문제로서의 죄라기보다는 죄의식이 초기 식민지 사람들에게 미친 심리적 영향에 관한 것이다.

『주홍글자』에서 그는 세 명의 주요인물, 즉 헤스터, 딤즈데일, 칠링워스가 저지르는 각기 다른 죄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충동적이고 정열적인 헤스터는 정열의 욕구로 인해 간음의 죄를 범한다. 그로 인해 그녀는 치욕의 상징으로써 가슴에 주홍글자 “A"를 달고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살게 된다. 고행의 짐을 짊어지고서도 그녀는 사회에 봉사하고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도와줌으로써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는다. 그녀의 이타적인 삶과 선행은 그녀의 죄를 순화시켜 도덕적 성장을 이루게 하고 위선으로 가득찬 청교도 사회를 정화시킨다.

목사인 딤즈데일은 비겁함 때문에 죄를 고백하지 못하는데, 그의 명성과 권위는 이를

※ 본 논문은 2007년 2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더욱 어렵게 한다. 자신의 위선적인 모습으로 인해 그는 고통 속에 빠지고, 사회적 존경과 명성이 더해갈수록 그의 죄의식과 고통은 더욱 깊어져 자기학대로까지 이어진다. 마침내 그는 대중 앞에서 숨겨진 죄를 고백하고 신의 은총 속에서 구원을 믿으며 죽음을 맞는다.

불쌍한 영혼의 칠링워스는 헤스터의 남편임을 감춘 채 헤스터의 간부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오른다. 그는 목사의 영혼을 파헤쳐 딤즈데일의 영혼을 고문하면서 인간영혼의 신성함을 파괴한다. 냉철하고 교양있고 지성적인 이 남자는 지적 오만으로 인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른다. 호손은 칠링워스를 검은 청교도인으로 그리고 있으나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그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구원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 작품에서 호손은 인간의 마음에 작용하는 죄의식의 영향에 대해 보여주고 있다. 그는 인간에 대한 사랑과 용서, 진실한 회개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목 차

Ⅰ. 서론 ····· 1

Ⅱ. 호손과 청교도주의 ····· 6

Ⅲ. 죄의 양상

1. 헤스터의 드러난 죄 ····· 11
2. 딤즈데일의 숨겨진 죄 ····· 22
3. 칠링워스의 용서받을 수 없는 죄 ····· 33

Ⅳ. 구원의 길 ····· 45

Ⅴ. 결론 ····· 51

Bibliography ····· 54

Abstract ····· 57

Ⅰ. 서 론

호손(Nathaniel Hawthorne, 1804~1864)은 전통적인 청교도 가문에서 태어났으며, 청교도적 전통을 가장 두드러지게 계승한 19세기 미국 작가 중 한 사람이다. 그는 미국을 배경으로 미국적인 것을 주제로 작품을 쓴 가장 미국적인 작가로 평가받는다. 그는 연약한 인간의 마음 속에 자리잡고 있는 죄악성과 그로인한 결과를 묘사하는데 비범한 솜씨를 보여준 미국 심리소설의 거장이다. 인간 본성의 심연(the depths of human nature)에 깊은 관심을 가졌던 호손은 인간 내면에 잠재해 있는 죄의 근원적인 속성과 다양한 죄의 모습 및 구원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하였다. 그에게 있어 죄와 구원의 문제는 거의 모든 작품의 주제가 되고 있는데, 그가 다루는 죄는 신학적 문제로서의 죄가 아니라, 죄의식이 초기 식민지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과[1] 갈등의 과정을 겪고 다다르게 되는 구원의 문제를 기본으로 한다. 전통적인 청교도 분위기에서 성장한 그는 캘빈주의(Calvinism)를 신봉하는 뉴잉글랜드(New England) 선조들의 윤리적 인생관을 작품 소재로 하여 도덕률이 뒤따르는 우화와 상징을 사용하여 청교도 사회의 특성을 훌륭하게 묘사하였다. 호손은 뉴잉글랜드의 청교도주의와 과거 조상들이 저지른 비인간적 행적에 대한 사색과 명상의 과정을 통해 청교도 사회에서 변해가는 종교와 인간의 참모습을 예리하게 통찰하여 이를 상징적 수법으로 탁월하게 표현하였다.

1890년 발표된 호손의 대표작인 『주홍글자』는 초기 뉴잉글랜드 지방 청교도들의 종교생활과 죄의식에 관한 그의 깊은 관심을 형상화한 작품으로 그의 뛰어난 상상력이 유감없이 발휘된 작품이다. 제임스(Henry

1) Robert E. Spiller, *The Cycle of American Literature* (New York: The Free Press, 1967), p. 60.

James)는 『주홍글자』의 출판을 미국문학에 있어 중요한 사건으로 다루면서 "상상력의 극치를 이룬 훌륭한 작품"[2]이라고 격찬하였다. 또한 스튜워트(Paul R. Stewart)는 미국소설의 발전에 중대한 공헌을 한 작품으로 사실상 미국문학 사상 최초의 상징주의 소설로 간주하였다.[3]

『주홍글자』는 헤스터(Prynne)와 딤즈데일(Dimmesdale)이 간음을 저지른 후에 겪게 되는 고통, 갈등, 변화 그리고 그들의 간음으로 인해 헤스터의 남편인 칠링워스(Chillingworth)가 행하는 복수로 빚어지는 결과와 구원에 관한 이야기이다. 작가는 이 소설의 중요 문제가 되는 헤스터와 딤즈데일 간에 행해지는 간음의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사건의 결과로 인해 그 등장인물들이 겪게 되는 심리적 갈등을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들이 겪는 죄의식은 헤스터와 딤즈데일 간의 간음을 발단으로 하고 있지만,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그들의 갈등과 죄의식은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호손은 헤스터가 범한 간음죄를 '드러난 죄(revealed sin)'로, 딤즈데일의 죄를 '숨겨진 죄(concealed sin)'로 그리고, 칠링워스의 잔인한 복수를 '용서받을 수 없는 죄(unpardonable sin)'로 그리고 있다. 이 작품에는 청교도 사회의 비정함과 형식적 종교 행위로 변질된 신앙의 타락, 그로 인한 인간사회의 비극 그리고 죄의식으로 얼룩진 인간 영혼의 어두운 심연이 매우 음울하게 그려져 있다. 청교도가 중시하는 도덕적 관점에서 볼 때 헤스터와 딤즈데일의 간음은 사형에 달하는 중죄이나, 작가는 이에 대한 관심보다는 인간의 영혼을 조롱하고 모독하는 칠링워스의 죄를 더 크게 다루었다. 그는 죄 자체보다는 죄가 낳은 필연적 결과로서의 인간의 고립을 심리적 수법으로 다루고 있으며, 죄의식으로 인한 인간들의 내면

2) Henry James, "*Densely Dark, with a Spot Vivid Colour,*" in *The Scarlet Letter*, ed. Wang-Rok Chang (서울: 신아사, 1987), p. 516.
3) Paul R. Stewart, *Cliffs Notes on Hawthorne's The Scarlet Letter* (Singapore: John Wiley and Sons(SEA) pte. Ltd., 1986), p. 50.

적 갈등을 승화시켜 도덕적 구원의 길을 인본주의적 입장에서 제시하고 있다.

이런 주제적 특성과 이 작품에 사용된 표현기법으로 인해 지금까지의 『주홍글자』에 대한 연구 동향은 주로 상징성과 모호성, 알레고리에 초점을 맞춰 죄와 고립의 문제, 종교적 죄의식과 갈등, 비극소설로서의 『주홍글자』, A와 펄의 의미, 헤스터와 딤즈데일의 도덕성에 관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로렌스는 『주홍글자』는 "완벽한 이중성(perfect duplicity)"을 가진 훌륭한 우화(allegory)로서, 그 안에 숨겨진 상징적 의미를 찾아야 작품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4] 마틴(Terence Martin)은 작품 속에 나타난 모호성은 독자로 하여금 혼란을 가져오나 한편으로 그 모호성이 긴장감을 가져오는 또 다른 특성이라며 이 작품의 특성을 이중성 혹은 모호성(duality or ambivalence)이라고 분석한다.[5]

이런 상징성과 모호성, 알레고리와 같은 표현기법은 주제와도 결부되어 주제에 있어 도덕적 우화 속에 깃든 숨겨진 의미와 상징적 의미를 살피는데 집중되었다. 레빈(David Levin)은 이 작품을 세 명의 죄인과 그들의 죄로 인한 결과에 관한 이야기라고 규정하면서 상징성과 알레고리, 심리적인 분석에 초점을 두고 접근한다.[6] 박영의 교수는 헤스터의 속죄와 고행은 영혼의 구원이라기보다는 더 깊은 도덕적 지혜에 도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7] 샌딘(Ernest Sandeen)은 죄와 죄의식에 초점을 두고 고찰하는 전통적인 접근방식과 달리 비극적 러브스토리로 작품을 해석한다. 이

---

4) D. H. Lawrence, "*Nathaniel Hawthorne and The Scarlet Letter,*" in *The Scarlet Letter,* ed. Wang-Rok Chang (서울: 신아사, 1987), p. 515.
5) Terence Martin, "*The Scarlet Letter,*" in *The Scarlet Letter*, ed. Wang-Rok Chang (서울: 신아사, 1987), p. 478.
6) David Levin, "*The Scarlet Letter,*" in *The Scarlet Letter*, ed. Wang-Rok Chang (서울: 신아사, 1987), p. 487.
7) 박영의, 「주홍글씨에 있어서 Hester Prynne의 변천과정」, 『영어영문학연구』 제2집 (한국영어영문학회 충청지부, 1969), p. 44.

외에도 많은 연구들에서 등장인물들의 죄와 상징적 의미에 많은 비중을 두고 죄와 죄의식, 내면적 갈등의 모습을 부각시키면서도 구원의 문제는 미약하게 다루고 있다.

그러나 구원의 문제는 이 작품의 사상적 배경이 되고 있는 청교도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호손 또한 자신의 도덕관에 의한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호손의 도덕관은 그들의 죄를 청교도 사회의 관점과는 다르게 그리고 있으며, 구원의 길 또한 청교도 윤리관에 의한 예정된 구원이 아닌 자신의 인본주의적 시각으로 제시한다. 따라서 죄의식으로 인한 고뇌와 시련을 극복하고 나서 인물들이 마침내 구원에 다다르는 모습까지 살펴보는 것이 작품과 작가의 사상을 이해하는데 더 의미가 있을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이 작품의 사상적 배경이 되고 있는 청교도주의가 초기 이주민들이 미국에 정착할 때 그들의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으며, 작가 호손을 통해 이 작품에 어떻게 투영되었는지를 살펴 볼 것이다. 다음으로는 세 명의 주요 등장인물들이 저지르는 죄의 양상을 인물별로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다. 간음죄로 인해 가혹한 처벌과 사회의 냉대를 받게 되는 헤스터의 사회적 고립과 시련을 살펴보고, 진실을 추구하는 종교인으로써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못하는 딤즈데일 목사의 고뇌와 위선적인 삶에서 야기된 도덕적 고립을 살펴보겠다. 또한 목사의 영혼을 파괴하는 잔인한 복수를 진행시킴에 따라 악마의 모습으로 변하는 칠링워스의 죄에 대해 살펴보고, 이 세 인물들이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이들의 말과 행동에 숨겨진 의미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각기 다른 갈등을 겪는 세 명의 인물들이 죄를 극복하고 구원에 이르는 과정을 호손의 도덕관과 연계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헤스터와 딤즈데일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호손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인인 칠링워스에 대해서 어떻게 구원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다. 이런 논의 과정을 통해 청교도주의가 작품과 작가에게 끼친 영향을 이해하고, 호손의 청교도주의에 대한 시각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작가가 탐색하고자 했던 인간의 내면에 대한 이해와 인본주의적 도덕관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JEJU NATIONAL UNIVERSITY
제주대
SINCE 1952

Ⅱ. 호손과 청교도주의

호손은 자기에게 깊이 스며들어 있던 뉴잉글랜드의 청교도주의 전통을 회의적인 시각으로 투시하고, 청교도들에게 작용했던 죄의식을 분석하여 그 죄의식이 인간의 영혼과 성격에 미치는 영향을 날카로운 통찰력과 섬세한 필치로 탐색하였다. 그의 작품 대부분은 17세기의 뉴잉글랜드 지방을 배경으로 청교도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다루었다. 뉴잉글랜드는 청교도주의 역사의 산실 역할을 한 곳으로 호손은 뉴잉글랜드 사회의 외면적 모습보다는 내면의 모습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 뉴잉글랜드는 그의 문학을 이루는 사상적 배경이다. 뉴잉글랜드의 청교도주의와 그 지방 사람들은 그의 로맨스 소재를 형성했고, 그의 조상들은 그의 문학에 어두운 그림자로 등장한다. 그가 쓴 것은 단순히 뉴잉글랜드의 지방색이 아니라, 뉴잉글랜드의 잠재의식에 대한 것이다.[8)]

따라서 그의 작품과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뉴잉글랜드 주민들의 정신적 지주였던 청교도주의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겠다. 청교도주의는 캘빈주의에 기초한 한 종파를 뜻하며, 동시에 미국인의 생활에 큰 영향을 준 도덕적 규범을 의미한다.

17세기 초 영국은 정치적, 종교적 투쟁이 격렬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종교에 있어 국왕의 신권통치를 인정하는 영국국교와 장로교 및 청교도간의 치열한 싸움이 계속되었다. 1620년 영국의 종교혁명 정책에 불만을

8) Rober E. Spiller, ed, *Literary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New York: Free Press, 1963), p. 419.

가진 청교도 중 일부(The Pilgrim Fathers)는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을 위해 신대륙으로 건너와 정착하는데 이것이 뉴잉글랜드 청교도주의의 시초다. 뉴잉글랜드 중에서도 메사추세스 만 식민지는 청교도주의의 중심이었으며 식민지 시대 미국 문화의 발상지이자 중심지였다. 그들은 영국을 떠나 신세계에 옴으로써 자신들이 신에 의해 주관되는 선과 악의 투쟁에 참여하고 있다고 믿었으며, 자신들이 선택된 자임에 틀림없다고 믿었다. 선민의식에서 나온 자부심은 그들에게 식민지 초기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었고, 그들의 유대를 강화시켰다. 청교도들은 보스톤을 중심으로 차츰 뉴잉글랜드 문화의 기초를 세워 나갔는데, 식민지 형성에는 종교적인 요소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들은 아무리 사소한 규율의 어김도 곧 신의 의지에 반하는 것이며, 식민지 사회 기반을 흔드는 부도덕한 행위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죄를 피하고 구원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사회적 도덕률과 식민지 법을 엄수하여 정도를 벗어나지 않아야 했고, 죄인에 대해 엄히 처벌하는 등 엄격한 자기 수련에 의해 인간 본래의 죄악을 극복하려고 항상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청교도주의의 원형을 이룬 캘빈의 예정설(predestination)에 의하면, 인간의 운명은 모두 신에 의해 예정되어 있으며, 인간은 철저히 타락한 존재로 인간의 구원은 인간의 힘이나 의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신의 선택을 받은 소수만이 신의 은총에 따라 구원된다. 캘빈은 아담의 타락으로 그 자손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지니고 있으며, 아담의 죄는 계속 자손에게 이어진다는 소위 원죄 개념을 주장했고, 이런 원죄는 신에 대한 배반에서 왔다고 보았다. 따라서 인간은 신을 경외하고 신에게 복종하며 신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향락과 사치를 금하는 금욕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청교도주의는 캘빈(Calvin)의 예정설, 신앙지상주의 및 성서중심주의, 원죄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신은 선의

근원이며 신의 뜻에 절대복종해야 하며, 성서를 신의 법률로 믿었기 때문에 성경은 모든 행위의 기준이 된다. 신의 은총 속에서 구원받는 것이 청교도들의 생의 목표가 되었고, 구원을 위한 교리는 궁극적으로 도덕적 발전을 촉진하여 부도덕한 사치와 세속적인 쾌락을 멀리하고, 근검, 검소하며 엄격한 금욕생활을 강조하게 되었다. 개인의 자유는 용납되지 않았으며 특히 도덕적인 죄를 범한 사람을 매우 가혹하게 다루었으므로 엄격한 도덕률을 신봉하는 이런 청교도 사회에서는 인간미마저 억압된 경향이 있었다. 식민지 초기 뉴잉글랜드에 정착한 이주민들에게 청교도주의는 정신적 지주로서 당시 사회의 정치, 사회, 경제, 가정 등 모든 분야를 지배했으며, 청교도 생활방식 안에서는 종교와 법률이 거의 동일시되어 종교가 모든 생활의 기초를 이루고 도덕률을 중시하는 엄격한 사회였다.

전통적인 청교도 가문에서 태어나 종교교육을 받으며 성장한 호손은 자신이 청교도라고 인식했으나, 청교도 역사와 사상에 대해 깊이 사색하고 연구하면서 초기 청교도들이 다른 종파나 죄인들에게 보여준 배타적이고 편협했던 태도, 비인간적인 냉혹한 태도, 교리를 앞세우며 형식으로 치우치는 교회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갖게 된다. 청교도 자체를 부인한 것은 아니지만, 죄의 가혹한 처단과 신을 중심으로 한 교리에 대해 나름대로 비판적 태도를 갖는다. 호손이 청교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시각이 다르지만, 청교도적인 색채들이 그의 작품 전반에 반영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의 작품에 나타난 종교관이 청교도주의 신학체계를 표방한 것은 아니지만, 확실히 청교도주의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다. 호손은 항상 청교도 신앙체제가 딱딱하고 냉혹하며 제한적이라고 생각했으나, 외형적 신앙 태도와는 별도로 신의 절대성을 인정하였으며, 청교도주의 교리 중에서 원죄 개념과 구원에 관한 내용을 작품 속에서 다루었다.

그의 기본적 종교관이 청교도주의지만, 과거 조상들이 신의 계시라는 미

명하에 무고한 사람들을 박해하고 인간의 양심과 존엄성을 저버린 비인간적인 행위와 초기 청교도들의 배타적이고 편협한 태도에 대해서는 통렬히 비판하였다. 그는 미국 초기 마녀사냥이나 퀘이커 교도 박해와 같은 조상들이 행한 죄에 대하여 죄책감을 갖고 있었다. 그는 선조들의 행적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고 회의적이었으며 그들의 행위에 대한 죄의식에 강하게 사로잡혀 있었다. 그는 조상들의 과거 행위에 대해 죄의식을 갖고 청교도적 배경과 그 정신적 기질을 탐구하여 자신 속에 배어있는 청교도 정신에 대해 비판정신을 키우고 청교도주의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청교도 사회가 인간의 죄에 대한 이해와 용서보다는 편협한 사고와 형식에 치우쳐 준엄한 규율과 죄의 처벌을 중시하는 태도는 헤스터가 벨링햄(Billingham) 총독 집에 갔을 때 거울에 비친 그녀의 모습에서 엿볼 수 있다. 거울은 인간으로서의 헤스터의 본모습이 아닌 주홍글자를 과장되게 비추어 그녀를 온통 "A"로 만들어버린다. 이는 청교도사회가 헤스터를 오직 그녀의 죄를 통해 보고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그 볼록거울에 비친 주홍 글자가 묘하게 크게 과장되어 나타나서 그녀의 외모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부분처럼 보임을 알게 됐다. 그래서 헤스터의 모습은 주홍글자 뒤에 가려져 전혀 보이지 않게 되었다.[9]

작가는 이처럼 자비심이나 동정심이 부족하며 인간의 공통된 죄를 은폐하려는 청교도 사회의 위선과 편협을 증오했고, 인간적인 만족과 쾌락을 거부하는 청교도들의 금욕적인 생각에 반발했다. 그는 신의 절대성이나 원죄의 개념을 받아들였으나, 신을 중심으로 규범과 율법을 중시하는 청

9) Nathaniel Hawthorne, *The Scarlet Letter* (New York: Penguin Books, 2003), p. 94. 이 책을 본 논문의 text로 하고 이후 인용문에서는 페이지 수만 기재함.

교도들의 종교적 신념에는 비판적인 태도를 보여주며, 인간적인 면을 중시하고 있다. 호손은 인간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죄가 위선적인 종교와 사회에 의해 냉혹하게 비판받는데 반발했고, 청교도적 윤리 도덕의식에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것이다. 호손은 죄를 통해 인간 사회를 보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인간의 구원은 엄격한 청교도 윤리나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인간관계를 통한 사랑과 용서,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에 있음을 『주홍글자』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JEJU NATIONAL UNIVERSITY · SINCE 1952 · 제주대

Ⅲ. 죄의 양상

1. 헤스터의 드러난 죄

젊고 아름다운 헤스터는 남편보다 먼저 신대륙의 보스톤에 이주해 와서 지적이며 감수성을 지닌 청년 목사 딤즈데일과 불륜의 관계를 맺게 되어 펄(Pearl)을 낳게 된다. 펄이 태어남에 따라 그녀의 죄상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고, 그녀는 간음의 죄를 범한 이유로 청교도 윤리에 따라 치욕의 표시인 주홍글자 “A”를 가슴에 달고 주민들 앞에서 공개 형벌을 받기 위해 처형대 위에 서게 된다. 신에게 복종하고 계율준수를 미덕으로 여겼던 당시 청교도 사회에서 헤스터가 저지른 간음은 종교적 교리를 위반한 것으로 사형에 달하는 중죄였다. 청교도 사회의 규율과 윤리를 위반한 헤스터를 처벌하려는 청교도들의 엄격함은, 타락했다고 여긴 영국을 떠남으로써 자신들의 신앙적 순수함을 유지하려고 했듯이, 자신들의 공동체에 나타난 죄를 엄격하게 다스림으로써 종교적 권위를 지키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헤스터는 칠링워스와의 애정 없는 결혼생활은 무의미한 것이란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에 청교도 사회의 시각과는 달리 자신의 죄를 후회하거나 자신을 죄인이라고 여기지도 않는다. 주민들이 그녀를 죄인이라 멀리하고 모욕해도 마음속으로는 자신의 행위를 떳떳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사회의 멸시도 인내로 견디고 저항하며 이겨 나가고자 한다. 단지 그녀는 사회적 규범을 어긴 죄로 인해 그 사회가 내린 형벌을 감내함으로써 자신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가슴에 A자를 달고 주위 사람들의 비판을 받아들임으로써 간음에 대한 대가를 치르며, 외형적으로는 그 사회 계율에 따라 자신의 간음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고 감내하면서

사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청교도 율법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청교도에 대항하는 입장을 취한다. 자신이 저지른 죄가 자신의 도덕률인 자연 법칙에 충실하려는 본성 때문에 비롯되었으며, 우주의 위대한 질서를 깨뜨렸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녀는 신학적인 의미에 있어서 죄의식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 호손은 헤스터가 지은 간음죄에 대한 비판보다는, 청교도사회가 그녀에게 내린 형벌의 가혹함을 통해 청교도 사회의 냉혹성을 비판하려 하였다.

죄에 대한 벌로 헤스터는 일생동안 가슴에 주홍글자 "A(Adultery)"를 달고 살아야 한다는 선고를 받는데, 이 글자와 더불어 그녀의 심적 갈등이 시작된다. "A"라는 글자는 그녀가 범한 간음의 죄를 나타내지만, 알파벳의 첫 글자로서 청교도들이 믿었던 "아담의 원죄(the original sin of Adam)"[10]를 상징하기도 한다. 로렌스는 이 "A"자의 의미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A"로 시작한다고 말하며, 간음(Adulteress), 알파(Alpha), 아벨(Abel), 아담(Adam), 미국(America)[11]을 예로 든다. 이야기가 진행됨에 따라 그 글자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헤스터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때는 "유능한(Able)"이란 의미로, 그리고 목사에게는 "천사(Angel)"의 의미를 지닌다.

펄을 안고 옥문을 나서는 그녀는 거만한 미소를 띠며 도도하게 대중 앞에 나선다. 재판대에 선 그녀에게서 죄의식이나 뉘우치는 기색을 찾아보기는 어려운 데, 이는 준엄한 청교도 법전과 가혹한 윤리관에 맞서는 태도로 볼 수 있다.

청교도의 가혹하고 엄격한 법률이 이 사나이의 모습에 잘 나타나

10) Levin, p. 490.
11) Lawrence, p. 504.

있었다. 범법자에게 단호히 그 법을 적용하는 것이 그의 맡은 바 임무였다. 그는 왼손에 지팡이를 쳐들고 오른손으로는 젊은 여인의 어깨를 붙잡아 끌어내오고 있었다. 감옥문 가까이 오자, 그 여인은 타고난 위엄과 강한 의지를 드러내기라도 하듯 형리를 뿌리치고, 제자신의 의사에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바깥 세상으로 걸어 나왔다. (49)

그녀에게서 죄인의 참담한 모습이나 사회의 계율을 깨뜨린 죄를 반성하는 기미는 찾아 볼 수 없다. 그녀를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으나, 정작 벌을 받기 위해 죄인으로 서 있는 헤스터의 모습은 이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기만 하다.

그리고는 볼을 빨갛게 붉히면서도 오만한 미소를 띤 채, 거리낌 없는 시선으로 거리의 사람들과 모여든 군중들을 둘러보았다. 여인의 웃옷 가슴에는 깨끗한 빨간 붉은 금실로 섬세하게 수를 놓아 정교한 무늬로 테를 두른 A자가 붙어 있었다. 그것은 아주 멋있고, 사치스러운 느낌마저 들었으며, 가히 예술적이라 할 만큼 훌륭한 솜씨로 만든 것이어서 마치 지금 입고 있는 옷이 가장 잘 어울리는 장식품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녀의 옷차림 또한 당시의 유행에 따른 것으로, 그즈음 식민지의 근검한 생활에 대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를 훨씬 넘는 것이었다. (50)

청교도 사회는 헤스터에게 엄격한 율법에 따라 공개적인 수치와 모욕을 주고, 치욕의 상징인 주홍글자를 평생 가슴에 달고 살도록 선고한다. 그녀는 가슴에 붙어 있는 주홍글자를 내려 보고 손으로 만져 보면서 적의에 찬 사회와 그녀에게 내려진 단죄가 그녀의 현실임을 깨닫는다. 브로드헤드(Richard H. Brodhead)는 엄격하고 권위적인 청교도 사회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헤스터의 처벌 장면을 첫 장에 놓음으로써 호손은 자신에게 비춰진 제도화된 청교도 사회에 대한 사회적· 종교적 가치를 드러내었다. 그 장면은 그가 『주홍글자』에서 청교도 사회 고유의 특성과 권위주의적 청교도를 다루는 전형적인 형태이다.[12]

마을의 규범을 어긴 헤스터를 엄숙하게 처벌하는 장면에는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가 내재한다. 청교도들은 헤스터에게 주는 처벌이 선량한 시민의식 증진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며, 그들에게는 죄를 저지른 한 개인을 공개적으로 처벌하여 뉴잉글랜드 전체의 본보기로 삼아 사람들을 경계시키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 그러나 이들의 의도는 개인의 존엄성과 인간성을 무시하고 왜곡시키는 결과로 나타난다. 호손은 이렇듯 사회 전체의 도덕성과 공동체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청교도들이 개인의 구체적인 감정과 개별성을 무시하여 죄의 처벌에만 치우치는 냉혹함과 편협성에 반발했다.

헤스터를 바라보는 청교도들은 다양한 견해를 피력한다. 심판대 주위에 모인 다섯 명의 여인들은 그녀의 죄에 대해 각기 다른 해석을 내린다. 첫 번째 심술궂게 생긴 오십대 여인은 자기네 다섯 사람 앞에서 헤스터를 심판하는 것이 더 좋으며, 재판장이 내린 판결보다 더 가혹한 형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두 번째 여인은 헤스터의 불륜으로 인해 목사인 딤즈데일이 괴로워하고 있다며 목사가 죄로 인해 겪게 되는 심리적, 종교적 갈등 문제를 제기한다. 세 번째 여인은 헤스터의 이마에 지울 수 없는 화인을 찍어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가혹한 벌의 문제를 제기한다. 네 번째의 여인은 한결 부드러운 어조로 주홍글자가 헤스터에게 항상 괴로움을 주었을 것이라며 죄가 주는 내면적 고통과 양심에 대해 이야기한다. 다섯 번

12) Richard H. Brodhead, *Hawthorne, Melville, and the Novel* (Chicago &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6), p. 44.

째 여인은 헤스터가 자기들 모두에게 수치심을 주었기 때문에 죽어 마땅하다며 죄의 대가에 대한 죽음의 문제를 언급한다.[13] 그들은 헤스터에게 수치를 주는 처벌이 단순히 형식적이고 법률적 차원의 처벌을 넘어 뉴잉글랜드 구성원 모두가 동의하고 인정하는 율법의 집행력을 나타낸다고 본다.

냉혹한 청교도 사회 속에서도 자유롭게 살아가는 헤스터의 태도는 이 작품 제1장에서 우중충한 감옥 앞에 피어있는 빨간 장미 덤불을 자신과 비유해 묘사하는 데서 잘 나타난다. 감옥 앞의 장미는 가냘퍼 보이지만 천성적으로 강인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는 헤스터에 비유되고 있으며, 장미가 그렇듯이 헤스터도 의연한 태도로 많은 시련들을 헤쳐 나간다. 그녀는 어떠한 법도 남녀 간의 사랑의 법보다 우위를 차지할 수 없다는 자신의 내면적 규범과 자연의 법칙에 따르고 있다. 헤스터는 위선적이고 경직된 청교도들의 윤리관에 대항하는 태도로 맞서고 있으나, 자신을 구경하려고 모여든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를 들을 때마다 참을 수 없는 수치와 고통을 느낀다.

> 그 당시만 해도 감옥 문에서 광장까지는 그리 멀지 않았지만, 죄수의 심정으로 보자면 꽤 먼 거리로 여겨졌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녀는 비록 오만스러울 만큼 꼿꼿한 자세로 형장을 향해 걸어갔으나, 자기를 구경하려고 몰려드는 사람들의 발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녀의 심장은 큰 길에 내팽개쳐져 그들의 발길에 짓밟히는 듯한 아픔을 느꼈을 테니까. (52)

천성이 충동적이고 정열적인 헤스터는 세 시간 동안 처형대 위에서 많은 사람들의 “바늘이나 독을 칠한 비수”(53)와도 같은 냉혹한 시선이 자

13) 박익두, 『다양을 위한 변모: Hawthorne의 예술적 원리와 실제』(서울: 한신문화사, 1982), p. 170.

신의 가슴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에 중압감을 느낀다. 그러나 가능한 있는 힘을 다해 납덩이처럼 무거운 참을 수 없는 고통과 침묵의 시간을 견뎌 낸다. 처형대 위에서 죄를 범한 남자의 이름을 밝히라고 윌슨(Wilson) 목사가 말했을 때, 그녀는 “주홍글자는 아주 깊숙이 새겨져 있어요. 목사님은 이걸 떼어낼 수가 없어요. 게다가 저는 저의 괴로움만이 아니라 그분의 괴로움까지도 참고 견디기를 빌고 있으니까요."(63)라고 말한다. 딤즈데일 목사가 공범자를 밝히라고 엄숙하게 말했을 때에도 그녀는 끝내 이를 거절하고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을 혼자 지려는 모습을 보여준다.

헤스터는 청교도 법정의 유죄 선고로 인해 끊임없는 고뇌에 시달린다. 사람들은 그녀를 세상에서 쫓겨난 딴 세계의 사람인 것처럼 대했고, 길거리에서는 사람들이 모여들어 그녀를 비웃어 댔고 교회에 가면 불행히도 자신의 행실이 목사의 설교 내용이 되어 그녀를 고통스럽게 한다. 낯선 사람들이 이상하다는 듯이 주홍글자를 바라보면 주홍글자는 새삼스레 그녀의 영혼 속에 아로새겨져 그녀를 괴롭혔고, 아이들은 그녀를 보면 그녀의 죄가 자신들에게 전염될까봐 공포를 느끼며 도망친다. 어린 처녀는 주홍글자를 곁눈질로 보다가 자기의 순결이 더럽혀졌다는 듯 두 볼에 홍조를 띠었으며, 그녀의 섬세하고 훌륭한 바느질 솜씨에 많은 주문이 쏟아지지만 청순한 신부의 흰 면사포에 수를 놓아 달라는 주문은 한 번도 없다. 이는 순결해야 할 신부의 옷은 간음죄를 지은 헤스터에겐 맡기지 않겠다는 그녀의 죄에 대한 청교도 사회의 냉혹한 시각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그녀는 사람들의 혐오와 멸시를 견디며 피할 수 없는 가혹한 죄의 현실 앞에 가슴 무너지는 순간들과 고통을 겪으며 사회로부터 철저히 고립된 생활을 한다. 주홍 글자는 그녀를 일반적 인간관계로부터 끌어내어 그녀 자신의 세계로 유폐시켜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살게 한다. 그녀는 사회로부터 추방되어 딸 펄과 함께 인가와 떨어진 마을 변두리 조그만 오두막집

에서 고독한 인고의 날들을 보낸다. 펄과 숲속을 거닐며 대화를 나누는 장면에서 어둠만이 함께하는 헤스터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 "해님은 엄마가 싫은가 봐. 엄마 가슴에 단 것이 무서워서 도망쳐 숨어 버리나 봐. 자! 저기 봐! 저쪽에서 놀고 있잖아. 엄마는 여기서 좀 기다려 봐요. 내가 뛰어가서 잡아 볼 테니. 나는 어린아이니까, 나한테서는 도망치지 않을 거야. 내 가슴에는 아직 아무것도 달지 않았으니까!"...펄은 재빠르게 달려가더니 정말 햇빛을 붙잡아 그 가운데 서서 환하게 웃었다...이윽고 어머니가 그 햇빛의 마술적인 원 안으로 발을 들여놓을 만큼 가까이 다가왔다.
> "도망간단 말이야!" 펄은 고개를 내저었다.
> "봐라!" 헤스터는 웃으면서 대답했다. "엄마도 손을 뻗치면 조금은 잡을 수 있어." 헤스터가 손을 내밀자 햇빛은 사라져 버렸다. (160)

이토록 음침하고 암울한 숲속에서도 펄에겐 햇빛이 넘치지만, 헤스터에겐 오직 그늘만이 함께 한다. 햇빛이 펄에게만 비치는 것은 펄이 순수함과 행복감으로 충만되어 있음을 말해 주며, 햇빛이 헤스터로부터 달아나는 것은 그녀가 죄를 범한 상태이기 때문이며, 죄의 그림자로 인한 빛이 없는 그녀의 삶을 의미한다.

그녀는 바느질을 하면서 죄에 대한 마음의 위안을 얻고 수치심과 심리적 고통, 사회로부터의 고립감에서 다소 벗어난다. 바느질을 통해 정열을 발산하며 또한 정열을 진정시킨다. 속죄하는 심정으로 자신은 지극히 소박하게 철저히 금욕적인 생활을 하며, 섬세한 바느질에서 얻는 사소한 기쁨조차 죄악시 하고 자신의 즐거움을 엄격히 억제한다.

> 인생의 모든 즐거움을 물리친 헤스터는 이러한 기쁨도 죄악시하여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하찮은 일에까지도 그녀의 병적인 양심이 작용하는 것은 오로지 순수한 회한 때문이라기보다 어딘가 의심스러

운, 그녀의 내부 깊숙한 곳에 무언가 잘못된 것이 숨겨져 있는 증거였는지도 모른다. (76)

호손은 이런 사소한 문제에 대한 엄격한 집착이 오히려 어떤 근원의 잘못을 암시하는 것은 아닌지 의혹을 제기하는데, 이는 헤스터가 품는 의혹만이 아니라 청교도사회 전체에 대한 의혹까지 포함하고 있다.

헤스터는 숲에서 목사를 만나 그와 함께 도망할 것을 계획하고, 뉴잉글랜드를 떠날 생각에 가슴이 벅차 가슴에 단 치욕의 표시를 떼버린다. 이를 본 펄은 그녀를 이방인 대하듯 하며 냉정하게 어머니의 가슴을 가리킨다. 헤스터가 이를 눈치채고 다시 수치의 표적을 원래의 자리인 가슴에 붙이자 펄은 그제서야 엄마라 부르며 다가간다. 이렇듯 펄은 헤스터에게 끊임없이 죄를 되새겨주는 살아있는 주홍글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아무튼 죄악이란 이렇게 뚜렷한 형태로 나타난 경우이든, 그렇지 않은 경우이든 숙명적인 성격을 띠게 마련인가 보다. 헤스터는 윤기 있는 머리를 틀어 올려 모자 속으로 쑤셔 넣었다. 이 슬픈 글자 속에는 생명을 시들게 하는 마술이라도 숨어 있는지 헤스터의 포근한 여성미는 스러져 가는 햇빛처럼 금방 사라져 버리고 잿빛 그림자가 내리덮였다. 이렇게 쓸쓸한 모습으로 변한 헤스터는 펄 쪽으로 손을 내밀었다.

"자, 이젠 엄마를 알아 보겠니, 펄?" 나무라는 듯한 투였으나 조용한 어조로 말했다. "냇물을 건너와서 엄마라고 불러 주겠지, 이 수치의 표시를 달았으니! 다시 슬픈 엄마가 되었으니!"

"응, 그럴게!" (184)

헤스터는 간음죄로 사회의 추방자(the outcast of society)가 되었으나, 펄은 어머니의 죄로 인해 태어날 때부터 악마의 자식이며 죄를 상징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어린이들 세계로부터 추방당한다. 헤스터에게 펄은 불가

해한 죄의 본질이며, 죄 많은 정열의 직접적인 결과로 그녀에게 언제나 죄의식을 일깨워 주며, 펄과 함께 있음으로써 그녀의 내적 고통과 죄의식은 끊임없이 계속된다. 헤스터가 자신 내부에 도사리고 있는 반항적이고 격렬한 기질, 사악한 그림자와도 같은 모습을 펄의 기질 속에서 보고 놀라는 것도 죄의 심리적 영향이 펄을 통해 그녀의 영혼에 이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펄의 영혼과 기질은 헤스터에게서 그대로 흡수된 것이었기에, 그녀에게 있어 펄은 죄의 결과로 그녀에게 끝나지 않는 고통과 죄의식을 안겨주는 존재이다. 그녀는 청교도들이 자신에게서 펄을 데려가려 할 때 펄의 존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외친다.

> "이 아이는 나의 행복입니다! 나의 가책이기도 합니다! 또 펄은 내게 벌을 주기도 합니다! 보지 못하십니까? 이 아이는 주홍 글자입니다만, 사랑을 받기만 하는 주홍글자이기에 그만큼 나의 죄를 벌주는 힘이 백만 배나 더 큰 것 입니다. 이 아이를 당신들에게 내줄 순 없습니다!" (100)

펄은 그녀에게 죄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세상에서 따돌림 당한 그녀에게 하느님이 내려주신 기쁨의 존재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녀는 펄이 자신의 가슴을 살아있도록 해 주는 보물이라고 느끼며, 펄은 곧 자신의 행복이라고 외친다. 펄의 이런 이중적인 속성은 펄을 통해 각인되는 죄가 헤스터에게 미치는 다양한 심리적 영향과 죄의 불가해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처럼 헤스터에게 있어 죄의 응보요 고통이며 슬픔인 동시에 행복이며 희망인 펄이란 존재는 헤스터의 모든 것을 투영하는 것이다. 펄은 헤스터의 죄의 모습이 구체화된 것으로, 그녀는 맘 놓고 즐거워할 수도 기뻐할 수도 없으며, 펄을 보며 자신의 죄를 상기하고 늘 어둡고 미로와도 같은 도덕적 황야(moral wilderness)를 걷는 고통을 안고 있어야 한다. 펄은 그녀에게 틀림없는 축복이요 희망이었지만, 쾌락을 용납하지 않

는 끊임없는 가책과 고통을 주는 엄격한 청교도의 율법과도 같다.

> 어느 여름날 오후, 펄은 들꽃을 두 손에 잔뜩 꺾어 들고 어머니 가슴을 향해 하나씩 던졌는데, 주홍글씨에 명중할 때마다 작은 요정처럼 깡충깡충 뛰면서 좋아했다. 헤스터는 처음엔 두 손을 모아 가슴을 가리려고 했다. 그러나 자존심에서인지 체념에서인지, 아니면 이루 말할 수없는 이 고통을 견디는 것도 회개의 하나라는 생각에서였던지, 죽은 사람처럼 창백해지면서도 펄의 매서운 눈을 슬프게 들여다본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래도 들꽃의 공격은 그치지 않았고, 날아오는 꽃송이는 거의 다 주홍 글씨를 맞혔다. 그때 이승에선 물론 저승에서도 도저히 그 약을 구할 도리가 없는 그런 상처가 어머니의 온 가슴을 할퀴었다. (87)

헤스터는 가슴에는 청교도 사회가 선고한 주홍글자 “A”를, 펄을 통해서는 살아있는 주홍글자를 보며 늘 죄의식과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펄은 헤스터 가슴의 “A”와 목사가 가슴에 손을 얹는 행동을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며 끈질기게 주홍글자의 의미와 목사의 행동에 대해 질문하면서 그녀의 심리를 불안하게 한다. 이런 내면적 죄의식과 양심의 가책, 사회로부터의 고립과 소외를 겪으면서도 그녀는 뉴잉글랜드를 떠나지 않는다. 다른 나라로 가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으면서도 그녀가 평생 사회로부터의 냉대와 멸시를 감수하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운명의 힘 때문이며, 또한 딤즈데일을 향한 사랑 때문이다. 숲속에서 목사와의 재회로 그녀의 열정과 본능은 다시 타오른다. 샌딘은 그녀가 치욕스런 죄의 표시인 “A”에 따른 고행을 참으며 뉴잉글랜드에 남은 것은 목사에 대한 사랑의 힘이라고 설명한다.

> 헤스터가 “주홍글자의 고문”을 견디려고 하는 것은 그녀가 참회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이다. 그녀의 고행은 죄의 대가를 치루

> 는 것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랑을 갖는 것에 대한 대가이다. 그녀의 겸손과 인내는 자기에게 부과된 고행의 내적인 반발을 감추며, 동시에 그녀의 애인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표현한다.[14]

그녀의 죄는 정열로 인한 것이며, 이는 청교도 윤리에는 위배되는 것이나 자연의 법칙으로 봤을 때는 남녀간의 사랑으로 고의적이거나 남을 해치는 죄는 아니다. 그녀의 죄에 대해 카펜터(Fredric I. Carpenter)는 세 가지 관점에서 설명한다.

> 전통적 도덕주의자들의 눈에 헤스터는 계율을 어겼기에 유죄다. 낭만적 이상주의자에게 인간의 깊은 본성에 따라 행동한 헤스터는 무죄다. 초절주의적 이상주의자에게는 부분적으로 그녀의 애인이 믿고 있는 도덕에 반하는 죄를 지었으나 그녀는 '보다 높은 법'을 믿었기에 그녀 자신의 도덕에 위배되는 죄를 짓진 않았다. 그녀는 자신에게는 진실했다.[15]

헤스터는 숲에서 만나 목사에게 칠링워스의 정체를 알려주면서 비참한 생활을 버리고 행복해 질 수 있는 세계로 함께 도피할 것을 과감하게 제의하는데, 이는 그녀가 당시 청교도 사회의 윤리와 규범보다는 자연의 참된 법칙을 추구하는 태도라고 하겠다. 그녀는 숲에서 자신에게 씌워진 청교도의 윤리를 벗어 던지고 잠시나마 자유롭고 아름다운 자신의 본성을 되찾는다. 이렇듯 헤스터는 적어도 자신에게 만큼은 진실하며, 자신이 지향하는 바대로 행동한다.

---

14) Ernest Sandeen, "*The Scarlet Letter as a Love Story*," in *The Scarlet Letter,* ed. Wang-Rok Chang (서울: 신아사, 1987), p. 571.

15) Frederic I. Carpenter, *"Scarlet A Minus,"* in *The Scarlet Letter,* ed. Sculley Bradley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1962), p. 309.

> 헤스터는 주홍 글자를 떼어 멀리 낙엽 속으로 던져 버렸다...치욕의 낙인이 없어지자 헤스터는 긴 한숨을 쉬었다. 치욕과 고뇌의 무거운 짐이 그녀의 정신으로부터 싹 사라져 버렸다. 아아! 이 얼마나 홀가분한 해방감이냐! 자유를 맛보니 비로소 지금까지의 짐이 얼마나 무거웠는가를 새삼 느끼게 된다! 새로운 충동으로 헤스터는 머리를 감싸고 있던 거추장스러운 모자를 벗어 버렸다. 순간 검고 윤기 나는 머리카락이 그녀의 어깨 위로 쏟아졌다. 그 풍성한 머리칼이 명암을 던지어 얼굴에 부드러운 매력을 주었다. 여성의 본능으로부터 샘솟는 듯한 부드럽고 환한 미소가 그녀의 입가에 넘쳐흘렀으며, 그녀의 눈매도 빛났다. (176~177)

청교도 사회는 형벌에 대한 고행의 길로 즐거움 없는 생활을 계속 강요하지만, 헤스터는 자신이 추구하는 생에 대한 확신을 지니고 있다. 목사의 죽음 후 그녀는 옛집으로 돌아와 자신의 죄와 슬픔을 들여다보며 여전히 가슴에 주홍글자를 달고 참회한다. 인생의 참다운 시련을 통해 딤즈데일이나 칠링워스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보다 높은 차원의 폭넓은 인간애와 신념을 가지게 된 것이다.

2. 딤즈데일의 숨겨진 죄

헤스터는 사회의 처벌로 인해 시련과 갈등을 겪지만, 딤즈데일의 죄의식과 갈등은 도덕적 용기가 부족한 그 자신에게서 연유한 것이다. 그의 성격은 딤즈데일(Dimmesdale)이란 이름에서도 엿볼 수 있다. 첫 부분인 “dim"은 연약함과 어둠을, “dale"은 골짜기로 그의 이름은 일종의 텅 비고 뻥 뚫린 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일생을 어둠과 우울한 골짜기에서 지내온 목사에게 매우 적절한 이름이라 할 수 있다.[16]

16) Hyatt Waggoner, *Hawthorne: A Critical Study* (Massachusetts: The Belknap

당시 보스톤의 정신적 지도자로서 교구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고 있는 딤즈데일은 헤스터와 불륜을 저질렀음에도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이다. 어떤 형태이든 헤스터는 자신의 죄가 세상에 드러나 청교도 사회의 인습에 따라 처벌받고 사회적으로 비난받고 고립된 생활을 한다. 반면에 딤즈데일은 청교도 사회의 신망을 받고 있는 목사이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구원의 전도사로서 외형상의 행복한 모습과는 달리 죄를 숨기고 있는 내면적 고통과 존경과 명성을 얻는 현실세계 사이에서 갈등을 겪으며 도덕적 고립에 빠진다. 일시적인 본능으로 인한 간음죄와 죄를 숨기는 위선적인 이중성으로 인해 그가 겪는 내면적 고통과 시련은 헤스터보다 더 심하다. 목사는 자신의 열정으로 인한 죄보다는 죄로 인한 위선 때문에 더 고통을 받으며, 나약하고 용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대중 앞에서 고백하지 못한다. 그는 교구민들의 신뢰와 존경에 부합하지 않는 자신의 이중적인 모습에 스스로를 자학하고 혐오스러워한다.

> 내가 설교단 위에 서면, 마치 내 얼굴에서 천국의 빛이라도 비쳐 나오는 것처럼 올려다보는 많은 사람들의 눈을 바라보아야만 하오! 그것이 대체 무슨 위안이오? 또 교인들이 진리를 갈망하여 마치 오순절의 하느님 말씀이나 되는 것처럼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을 바라보아야만 하오. 그러나 사람들이 그토록 신망하고 있는 나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정작 검은 실체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소. 당신은 이것을 위안이라고 할 수 있겠소, 헤스터? 표면적인 나와 내면적인 나가 전혀 딴판인 나 자신의 모습에 난 차라리 웃음이 났소! (167)

헤스터가 가슴에 치욕의 표시를 단 뒤부터 그의 도덕적 고립과 고통은 시작되는데, 사회적 지위와 체면은 그가 속죄할 기회를 허락하지 않으며,

---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1971), p. 145.

외부의 존경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의 번민과 고통은 심화된다.

> “더욱 비참하오, 헤스터! 그 때문에 더 비참해질 뿐이오!” 목사는 쓰디쓰게 웃었다. “내가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실은 아무런 신념 없이 일하고 있을 따름이오. 그런 것은 환상에 지나지 않는 것이오. 나처럼 타락한 영혼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제하기 위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소? 더럽혀진 영혼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깨끗이 할 수 있단 말이오? 사람들이 나를 존경한다지만, 차라리 경멸과 증오를 퍼부어 주었으면 좋겠소.” (166~167)

목사는 일요일 설교 때마다 여러 번 자신의 죄의식에 대해 설교하고 죄를 고백하려 한다. 그의 고통과 죄의식이 컸다고 하나 직접적인 죄의 고백 없이 행하는 이런 행동들은 위선적이다. 그는 자신이 지닌 무거운 짐 때문에 죄를 지은 자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을 진실로 동정하며, 슬프고도 설득력이 풍부한 웅변을 통해 자기 자신의 고민을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전한다.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목사로서의 자신은 사실은 허위와 위선에 가득 찬 타락한 인간이며, 가장 비열하고 혐오스러운 악의 화신이라고 토로한다. 이토록 목사의 자책하는 말에서 오히려 사람들은 목사의 깊은 신앙심과 순결한 영혼에 감동받아 더욱 더 그를 존경한다. 그는 자신을 생명으로서 신성한 실체를 갖고 있지 않은 그림자에 불과하며 일체의 무게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 결과 대중이 보내는 사랑과 존경은 그에게 상상 못할 고뇌로 돌아온다.

> 목사는 그 애매한 고백이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지 충분히 알고 있었다-후회하고 있다고는 하나, 교묘한 위선자임에는 틀림없었다!- 죄지은 마음을 폭로함으로써 자신의 양심을 기만하려고 하였으나, 그로부터 위안은 조금도 얻지 못한 채 또 새로운 죄와 스스로 치욕

을 인정하는 고통을 얻었을 뿐이었다. 그는 분명 진실을 말했건만 그럴싸한 거짓으로 바꾸어 놓은 셈이 되었다. 그러나 사실 그는 누구보다도 진실을 사랑하고 거짓을 미워했다. 그러기에 세상의 무엇보다도 비참한 자기 자신의 모습이 혐오스럽게 느껴졌다. (126)

헤스터가 사회로부터 언도된 자신의 죄의 대가를 당당히 받아들이며 공범자의 죄까지 감수하려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딤즈데일은 자신의 죄를 직접 고백하지 못하고 헤스터의 입을 통해 폭로되기를 촉구한다. 처형대 위에 서있는 헤스터에게 공범자의 이름을 말하라고 촉구하면서 그는 자신의 괴로운 심정을 간접적으로 토로한다. 함께 죄지은 이를 감추는 것은 위선을 가중시키는 일이라며 자신이 해야 할 고백을 헤스터에게 맡기며 준엄하게 설교하는 모습은 목사가 얼마나 위선에 찬 비겁자인가를 보여준다.

"헤스터! 그 남자가 높은 곳에서 내려와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 수치의 단상 위에 함께 서야 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 편이 차라리 평생을 두고 죄를 숨기는 것 보다는 훨씬 나을 테니까요. 당신이 침묵을 지키는 것이 그 남자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소? 그 남자로 하여금 타락의 죄를 저지른 위에 위선의 죄를 더하도록 강요하는 것 밖에 더 되겠소. 하느님이 당신에게 여러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한 것은 당신이 가슴속의 죄악과 가슴 밖에 있는 비애를 공개적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이오. 지금 당신의 입술 앞에 놓여 진 그 술잔, 입에는 쓸지 모르나 영혼에는 이로운 술잔, 당신은 그것을 그 남자로부터-혹 그 사람 자신이 그것을 잡을 용기가 없는 남자일지 모르나-빼앗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되오!" (62)

목사는 자기 죄를 의식할 때마다 손을 가슴에 얹는 습관이 생긴다. 또한 고통을 견디지 못한 5월 어느날 밤에 자신의 영혼을 희롱하며 헤스터가 섰던 처형대 위에 남몰래 서서 자신의 죄가 세상에 드러나서 자신의

비극이 끝나기를 바라듯이 크게 울부짖는다. 그는 우주 전체가 자신의 심장 위 주홍색 표적에 집중되는 듯한 공포심에 사로잡힌다. 목사는 지나가던 펄과 헤스터를 불러 그들을 자신과 함께 처형대 위에 오르게 한다. 펄은 그에게 낮에도 이곳에서 자신과 엄마의 손을 잡아주라고 요구하지만, 그는 이 세상에 빛이 있을 때는 그럴 수 없으며 최후의 심판의 날 그러겠다고 한다.

> "내일 낮에 엄마하고 나하고 함께 여기 서 주시겠어요?" 펄이 말했다.
> "그건 안돼, 펄." 순간 새로운 기력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줄곧 고민거리였던, 대중 앞에 폭로된다는 공포심이 새삼 그를 엄습했다. 지금 이렇게 셋이 함께 하게 된 것에 한편으론 기묘한 기쁨을 맛보면서도 한편으론 두려웠다. "그건 안 돼. 착한 아이지. 내일은 안되지만, 반드시 언젠가는 엄마와 너와 같이 이곳에 서 주마!" (134)

이처럼 처형대 위에서 부질없는 속죄의 행위를 하면서도 그는 여전히 자신의 죄가 대중 앞에 폭로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만이 최선의 길이며 진실된 참회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는 소심함과 우유부단함으로 이를 실행에 옮기지 못한다. 그는 자신이 위선적인 것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를 처벌하기 위해 자기 어깨를 회초리로 때리며 혹독히 자학하고, 일종의 고행으로써 힘이 다할 때까지 엄격한 단식을 하고, 거의 매일 밤 컴컴한 어둠 속에서 철야 기도를 올린다. 거울 속의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밤을 새우기도 하는 등 끊임없는 자기 성찰이 목사의 일과가 되지만, 육체를 괴롭힐 수는 있을망정 자신의 영혼은 정화되지 않는다. 7년 동안 고통과 양심의 가책에 괴로워하며 자신을 자책하고 그로인해 영혼과 육신이 극도로 약화되고 비참해진다.

그가 직면하고 있는 종교적 갈등은 인간을 선택된 자와 저주받은 자로

양분하는 청교도 사회의 속성과 무관하지 않다. 그 당시 목사들은 사회의 지도계층으로 사회의 규범이나 주변의 편견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제약을 받았는데, 딤즈데일이 죄를 고백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그가 속한 이런 사회질서 때문이기도 하다. 샌딘은 이런 목사의 번민과 고통은 그가 청교도 사회의 엄한 계율에 얽매인 데서 연유한다고 지적한다.

> 소설 전반에 흐르는 딤즈데일의 도덕적 딜레마는 원시적 본능의 요구와 문명화된 사회의 요구 사이의 충돌에 맞춰진다. 이는 헤스터와 가진 한 번의 열정에 관련된 것이기도 하지만 청교도 계율에 더욱 깊숙이 관련되어 있다. 그의 떳떳하지 못한 양심은 껍데기뿐인 거짓 사회에서 그가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믿게 한다.[17]

감춰진 죄로 인한 내면적 갈등과 고통은 그의 영혼과 육체를 점점 파멸의 길로 이끌고, 이 때문에 당시 의사로써 사람들의 신망을 받던 칠링워스와 같이 지내게 된다. 딤즈데일은 칠링워스의 신분을 추호도 의심치 않으며 그에게 자신의 건강을 맡기고 지적, 정신적 교류를 나누며 의지한다. 딤즈데일은 자신의 주치의요 친구로서 함께 살게 된 칠링워스에게 헤스터는 자신의 죄가 드러남으로써 죄를 숨긴 자보다 오히려 고통과 불행이 가벼워졌을 거라며 자신의 고통을 빗대어 말한다. 딤즈데일의 병약함은 곧 양심의 연약함을 암시한다. 목사의 병을 치료하던 칠링워스는 영혼의 고뇌와 상처를 고백해야만 육신의 병을 고칠 수 있다며 목사에게 마음에 간직한 비밀을 털어놓을 것을 강요한다. 그러나 목사는 교묘하게 자신의 입장을 둘러댄다.

"그러나 좀 더 명백한 이유를 들지 않더라도 타고난 성질 때문에

17) Sandeen, p. 577.

침묵을 지키는지도 모릅니다. 또 어쩌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비록 죄는 졌지만 하느님의 영광과 인간의 행복에 대한 열정은 식지 않아 사람들 앞에서 추악하고 흉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를 꺼리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게 되면 선행을 할 수도 없게 되고, 보다 현실적인 봉사를 함으로써 과거의 악행을 속죄할 수도 없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사람들 앞에서는 마치 흰 눈처럼 순결한 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마음속에는 좀처럼 지울 수 없는 죄악이 시커멓게 얼룩져 있는 것입니다." (116)

칠링워스는 하느님과 타인에게 봉사하려면 자기가 저지른 치욕을 응시하고 겸손한 태도로 죄를 회개하여 자기 자신에게 진실해야 한다고 반박한다. 신의 영광과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는 양심과 신의 진리에 충실하고 기만과 허위를 벗어야 한다며 목사의 숨겨진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집요하게 목사를 압박한다.

깊은 신앙심으로 타인의 타락을 구원하고 진실해야 할 목사의 신분으로 자신의 죄를 알고도 이를 고백하지 못하는 딤즈데일의 심리적 고통은 종교적 갈등과 맞물려 극에 달한다. 헤스터와의 숲속 만남에서 도덕적 고립과 고통으로 인해 절망뿐인 그의 심정을 확인할 수 있다.

"헤스터, 당신은 마음의 평화를 찾았소?"
헤스터는 자신의 가슴을 내려다 보면서 쓸쓸하게 웃었다.
"당신은 어떠세요?"
"어림없는 일이오! 절망뿐이오! 나 같은 인간이 현재와 같은 생활을 하며 절망 이외에 또 무엇을 바랄 수 있겠소. 내가 무신론자였거나, 양심이 없는 인간이었거나, 거칠고 동물적인 본능으로 살아가는 야비한 인간이었다면 벌써 오래 전에 마음의 안정을 찾았을 것이오. 아니, 안정을 잃는 일도 없었겠지! 지금 내 영혼의 상태가 이꼴이니 하느님이 내게 주셨던 모든 훌륭한 능력이 본디는 선한 힘이었던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나의 정신을 괴롭히는 도구로 전락해 버렸소. 헤스터, 나만큼 비참한 사람은 없소!" (166)

이토록 목사는 자신은 말 못할 비밀을 간직함으로써 헤스터보다 불행하며, 죄가 드러남으로써 심리적으로 평화로운 그녀를 부러워한다.

그는 자신의 비밀을 털어 놓을 수 있는 친구라도 있다면 그 정도의 진실만으로도 구원될 수 있을 거라며 거짓과 공허, 죽음으로 가득 찬 자신의 삶에 대해 절망한다.

"하기야 그동안 고행은 많이 해 왔지만, 회개는 한 번도 한 일이 없소! 만일 그랬다면 이런 위선적인 법복을 벌써 오래전에 벗어던지고 최후의 심판 날에 있을 그대로의 모습을 사람들 앞에 드러냈을 것이오. 헤스터,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오. 가슴에 떳떳하게 주홍글자를 달고 있으니 말이오! 나의 주홍글자는 남모르게 불타고 있소! 7년간이나 거짓된 삶의 고행에 시달려 온 끝에 참 모습을 알고 있는 당신과 이렇게 마주하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위안을 주는 일인지 당신은 아마 모를 것이오! 나에게 친구라도 있어-지독한 원수라도 좋소-사람들의 나에 대한 칭송으로 괴로울 때 매일같이 그를 찾아가 나의 정체가 얼마나 추악하고 비열한 죄인인가를 들려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나의 영혼은 살아갈 수 있을 것이오." (167)

딤즈데일이 고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본 헤스터는 목사의 고통을 위로하며 마침내 칠링워스의 정체를 털어 놓는다. 이에 딤즈데일은 칠링워스의 이중적인 모습에 분노하며 칠링워스의 죄는 자신보다 더 극악하다고 말하며 전율한다.

"헤스터,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죄인은 아니오. 타락한 목사보다도 더 괘씸한 사람이 하나 있으니 말이오! 그 늙은이의 복수

는 나의 죄보다도 더 흉측하오. 그 사람은 잔인무도하게 인간 마음의 신성함을 짓밟은 것이오. 그러나 당신과 나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았소!" (170)

치욕과 절망, 고독 속에서 오히려 자신의 운명 방향을 자신이 이끌어 가려는 헤스터는 사회 지도계층이 설정해 놓은 모든 인간 사회의 제도로부터 자유롭다. 숲을 떠나면 다시 치욕의 업고를 짊어져야 하는 헤스터는 허무한 명예의 껍데기를 쓰고 살아야 하는 딤즈데일에게 비참한 세계인 뉴잉글랜드를 떠나 다른 세계로 도망가자고 제의한다. 그러나 딤즈데일은 자신은 비록 위선적이고 죄를 지은 비참한 몸이지만 다른 사람의 영혼은 구원할 수 있다고 믿으며 처음에는 이를 거절한다. 진실과 순수함을 추구하는 목사로서 그는 죄를 뉘우친 뒤 속죄 받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며, 죄지은 자로서 자신의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비겁함을 보인다.

딤즈데일은 자신의 마음속에 죄가 있음을 부정하고 싶어한다. 간음의 행위는 사실상 그들이 거기에 있었고, 실제로 간음이 이루어진 것임을 보여주지만, 그는 간음을 자신이 바로잡을 수 있는 탈선으로 보려고 한다. 그는 죄가 기본적으로 인간 조건이란 걸 믿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대중이나 자신에게 고백하지 못한다. 따라서 그는 자신을 채찍질하고, 자신을 정화시키기 위해 칠링워스의 심문을 받아들인다. 인간은 누구나 죄지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인간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는 호손의 개념과는 직접적으로 상반된다.[18]

그의 이런 태도는 자기 기만적이며 진정한 참회없이 내면적으로 자만심을 키우는 것이다. 결국 그는 헤스터의 격려와 위로에 자신의 무거운 숙

18) John C. Stubbs, "*A Tale of Human Frailty and Sorrow,*" in *The Scarlet Letter,* ed. Sculley Bradley (New York: W.W. Norton & Company, 1962), pp. 418~419.

명을 벗어 던지고 새로운 세계로 가서 다시 한 번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에 동의한다. 두 사람의 육체적인 결합인 동시에 정신의 표출이기도 한 펄을 만나게 된 딤즈데일은 그들의 관계를 알아낸 듯한 펄의 시선을 느끼자 습관처럼 무의식적으로 손을 가슴에 얹는다. 이는 뉴잉글랜드의 모든 것을 벗어 던질 결심을 하고도 자신의 의식 속에 깊게 자리 잡은 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의 내면 상태를 반영하며, 그도 헤스터처럼 펄과 함께 있는 한 고통과 죄의식으로부터 해방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헤스터와 헤어진 후 목사는 심하게 갈등한다. 뉴잉글랜드를 떠난다는 생각은 헤스터에겐 기쁨일 수 있으나, 목사에겐 순간적인 해방감만 줄 뿐 오히려 더 많은 혼란을 가져온다. 그녀와 정열의 죄를 한 번 범한 것을 제외하곤 평생 청교도 계율에 충실해 온 목사로서 죄를 감춘 채 새로운 삶을 추구하는 것은 자신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더 큰 죄악이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순수함의 표상으로 존경받았지만, 마침내 자기 자신 속에도 인간의 본성인 악이 내재할 수 있음을 깨닫는다. 그리하여 이제까지의 개인적인 종교적, 도덕적 갈등을 멈추고 뉴잉글랜드 사회 전체를 바라보게 되고 마침내 자신의 죄를 고백할 것을 결심한다.

그는 뉴잉글랜드 경축일에 예언자처럼 지금 황야에 건설되고 있는 뉴잉글랜드와 관련하여 새로 모인 선민(people of the Lord)들을 위해 영광에 넘친 뉴잉글랜드의 미래와 하느님과 인간 사회의 관계에 대해 설교한다. 영광스런 설교를 감동적으로 끝낸 후 딤즈데일은 칠링워스의 만류를 물리치고 헤스터, 펄과 함께 처형대 위에 올라가 엄숙하고 위엄 있으나 떨리는 양심의 가책과 고뇌의 심연에서 우러나오는 절규의 목소리로 처절히 자신의 죄를 고백한다.

> “낙인은 그 사나이에게도 찍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말해 버리려고 결심한 듯 그의 어조는 단호했다. “하느님께선 그것을 보셨

> 습니다. 천사들은 쉴새 없이 손가락질 했습니다! 악마도 그 모든 것을 알고, 불타는 손가락으로 그것을 만짐으로써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묘하게도 사람들 눈을 속이고 죄 많은 속세에서 자기만이 순결하여 슬프다는 듯이, 천국에 있는 동료를 만나지 못하여 외롭다는 듯이 여러분들 사이를 걸어 다녔던 것입니다. 이제 죽음을 앞두고 그 남자는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다시 한번 헤스터의 주홍 글자를 봐 주십시오! 이 불가사의하고 무서운 주홍글자도 그 남자의 가슴에 찍혀 있는 표적에 비하면 한낱 그림자에 불과하며, 그 남자 자신의 빨간 낙인도 그의 깊은 가슴 속이 타고 있는 상징에 불과한 것입니다! 죄인에 대한 하느님의 심판을 의심하는 분이 이곳에 계십니까? 보십시오! 그 심판의 무서운 증거를 보십시오!" (220~221)

그는 7년 전 헤스터가 처벌받던 처형대 위에 서서 교구민들에게 존경받는 자신도 불완전한 인간임을 깨닫게 하고자 이제까지 숨겨왔던 주홍 표적을 떼어 보이며 자신의 죄를 세상에 드러낸다. 죄를 숨김으로써 위선과 거짓된 삶이라는 다른 죄가 파생되고 이로 인해 더 큰 고통과 양심의 가책을 받았던 목사는 공개 고백을 통해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된다. 그는 격심한 고통의 고비를 넘기고 대중 앞에서 고백함으로써 승리를 거두게 되고, 자신을 끊임없이 고문하고 괴롭히던 도덕적 고립에서 벗어난다. 극적인 고백으로 고통과 죄악에서 풀려 난 딤즈데일은 자신을 괴롭히던 칠링워스에게 “하느님이 당신을 용서하길 바라오. 당신 역시 큰 죄를 지은 셈이니까”(221)라며 사죄를 기원한다. 진실을 담은 고백을 끝낸 후 처형대에 쓰러진 딤즈데일은 부드럽고 평화스런 미소로 자신의 딸인 펄에게 키스해 줄 것을 청하는데, 이로써 딸에게도 용서받으며 자신에게 지워진 무거운 짐을 벗는다.

성인으로 추앙받고 실제로 성스런 성품을 가진 그가 청교도 도덕률을 어긴 죄인임을 고백한 것은 청교도 집단이 다른 종교집단과 똑같이 죄지

은 인간들이며, 모든 인간이 죄를 지을 수 있는 불완전한 존재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뉴잉글랜드는 이제 선택받은 사람들의 집단이 아닌 불완전한 인간의 집단으로서 인간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죄와 그로인한 고통과 속죄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는 진정한 삶의 방식을 보여준 것이다. 죽음을 동반한 그의 마지막 고백은 청교도 사회에 신의 자비를 일깨워 주는 진실한 신앙인의 자세를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호손은 아무리 훌륭한 인간이라도 하느님의 무한한 순결성에 비하면 단지 죄인일 뿐이며, 죄를 감추기보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 진실된 삶을 추구하라는 메시지를 목사를 통해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 그는 목사의 비참한 경험을 보여주며 마지막까지도 “진실하라! 진실하라! 비록 최악의 죄가 아닐지라도 최악의 죄를 예상케 하는 성질을 숨기지 말고 세상에 제시하라!”(224)고 호소하고 있다.

3. 칠링워스의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칠링워스는 풍부한 지적 교양과 폭넓은 사상의 자유로움을 지닌 학자로, 성질이 온화하고 따뜻하지는 않았으나 친절한 의사로 세상과의 교섭에 있어서도 순수하고 정직한 남자이다. 그는 늙은 데다 불구자이지만 젊고 아름다운 헤스터를 아내로 맞아 온기 없는 자신의 생활에 훈김을 넣어 따뜻한 가정을 이루는 소박한 행복을 원한다.

그러나 해박한 지식과 냉철한 이성의 소유자였던 칠링워스는 헤스터와 딤즈데일 간의 불륜의 관계를 알고부터는 목사에 대한 복수심에 사로잡혀 악의 화신으로 돌변한다. 죄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 구원에 이르기까지의 처절한 고통을 겪는 헤스터와 딤즈데일과는 달리, 칠링워스는 청교도의 규율 자체만을 고수하는 냉혈적 인물로 청교도 사회를 대변한다.

호손은 처형대에 서 있는 헤스터를 바라보는 칠링워스를 뱀의 모습으로 그리면서 앞으로 진행될 그의 잔인하고 냉혹한 복수를 암시한다.

> 인간의 내면을 꿰뚫어 보는 일에 익숙해져 있어 내면적인 것과 관련이 없는 외부적인 일에 대해서는 가치도 의의도 인정치 않는 듯한 태도로 처음에는 무심한 눈초리였다. 그러나 이윽고 그의 표정은 날카롭게 꿰뚫어 보는 듯한 눈초리로 변했다. 번민하는 듯한 고통의 빛이 그 얼굴에 떠올랐다. 마치 한 마리의 뱀이 그의 얼굴 위를 잽싸게 지나가다가 잠시 멈춰 똬리를 트는 것처럼 그의 표정엔 몸이 비틀리는 듯한 공포가 나타났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재빨리 의지력으로 억눌러 버렸다. 아주 순식간의 일이었다. (56~57)

헤스터의 불륜 상대자를 캐내려는 그의 생각은 그녀가 처형대에 섰을 때부터 시작되는데, 그의 구부린 육체는 그의 도덕적 결함을 상징한다. 칠링워스는 헤스터가 간부의 정체를 숨기자 책에서 진리를 찾듯 기필코 간부를 찾아내어 자신의 수중에 두려고 한다. 그는 헤스터에게 자신의 정체를 비밀로 해줄 것을 요구하는데, 이는 그녀의 남편으로서 자신이 받게 될 동정이나 비난의 화살, 사회의 어떤 구속이나 시선은 외면한 채, 오로지 복수에만 전념하려는 생각 때문이다. 칠링워스는 자신이 헤스터에게 저지른 잘못이나 자신에게 돌아올 비난과 수치는 거부하면서 자신이 받은 상처와 분노를 오로지 간부에 대한 복수로 몰아넣는다.

아벨(Darrel Abel)은 늙은 칠링워스가 자신의 본성을 충분히 알 만큼 성숙하지도 않은 꽃봉오리 같은 헤스터와 결혼한 것부터가 잘못이었으며, 결혼 후 그녀를 신대륙에 먼저 보내 그녀를 홀로 두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지적한다.[19] 또한 칠링워스의 가장 극악한 잘못은 그녀와 그녀의 수치에

19) Darrel Abel, *"Hawthorne's Hester,"* in *The Scarlet Letter,* ed. Sculley Bradley (New York: W.W. Norton &Company, 1962), p. 319.

대한 자비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잘못되고 부자연스런 결혼의 결과로 그녀를 배반한 죄를 인정하고 그녀에게는 복수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자신이 만들어낸 상황의 결과로 그녀가 받는 비난을 감수하거나 공유하지는 않는다. 칠링워스의 악의 출발점은 아내를 잃은 개인의 아픈 마음의 상처와 분노를 청교도적 윤리, 즉 공동체적 윤리의 잣대로 판단하고 처벌하려 한 데서 시작된다. 칠링워스도 둘의 결혼이 처음부터 잘못이었다며 자신이 헤스터에게 저지른 잘못을 인정한다.

> "날 때부터 불구였던 내가 젊은 여자와 같이 생활하며 지적인 재능으로 그 모자라는 부분을 덮어 나갈 수 있으리라 믿은 게 처음부터 잘못이었소. 남들은 나를 현명하다고 하오. 현명하다는 말이 자신의 일에 관해서도 적용된다면, 이번 일 역시 예측했어야 옳았던 거요. 어두운 숲 속을 벗어나 이 그리스도 교도의 식민지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이미 나는 확실히 알고 있었어야만 했소. 즉 내 눈앞에 가장 먼저 나타날 것은 사람들 앞에 치욕의 초상처럼 서 있는 당신이란 것을. 아니, 남편과 아내로서 교회의 돌층계를 내려오던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길에 봉화 불처럼 빨갛게 주홍 글자가 보였어야 했던 거요." (68)

칠링워스의 냉혹한 성격은 그의 이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칠링워스(Chillingworth)란 이름은 "냉담한, 차가운"을 의미하는 "chilling"과 "가치, 값진 것"을 의미하는 "worth"로 나뉜다. 차가운 심장을 가진 그는 잔혹한 복수를 진행시켜 냉혹한 죄를 짓지만, 헤스터를 따라 신대륙으로 오기 전에는 한때 값지고 가치로운 삶을 추구했던 인물이다.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인간을 사랑하는 능력이 결여된 것을 빼곤, 그는 고상하고, 자기절제가 뛰어나며, 준법성을 갖춘 학자다운 사람이었다.[20]

---

20) Waggoner, *Hawthorne: A Critical Study*, pp. 145~146.

그는 인간성을 잃고 헤스터의 간부를 처벌하려는 복수의 집념에 사로잡혀 쇠약해진 딤즈데일의 병을 고친다는 명목 하에 그와 같이 생활하면서 죄의식으로 고통받는 목사의 영혼을 마음대로 파헤치며 그를 파멸로 몰아간다. 아내를 빼앗김으로서 단란한 가정을 이루려던 소박한 소망이 사라져버린 그의 분노와 상처는 이해가 가나 잔인한 방법을 동원하여 목사를 더 큰 고통과 파멸로 몰고 간 행위는 인간성을 잃어버린 극악한 죄라 하겠다. 헤스터와 딤즈데일의 죄는 '감성(heart)'으로 빚어진 '정열의 죄(sin of passion)'이지만, 칠링워스가 저지르는 죄는 '지성(head)'으로 인한 '지적 오만의 죄(sin of intellectual pride)'로, 호손은 오만의 죄를 극악한 죄로 여겼다.

> 호손은 인간의 특성을 감성(heart)과 이성(head)으로 구분 짓는다. 감성은 자연에, 이성은 초자연에 가깝다. 이성은 인간에게 인간의 한계를 넘어 초인이 될 수 있단 영감을 불어넣고 그 한계를 넘으려는 시도를 하게 함으로써 자체가 비인간화되기 쉬운 위험을 안고 있다. 딤즈데일은 깊은 지성에도 불구하고 감성에 지배적인 인물이다. 그는 종교나 이성 둘 다를 압도하는 감성으로 인해 죄의 열정에 휩싸인다. 악마같은 칠링워스는 이성형 인물로 냉철한 실험가이자 사상가로 호손은 그를 완전한 영혼의 파멸을 겪는 대표적 인물로 내세운다.[21]

호손은 칠링워스를 철학적 호기심을 가지고 목사의 어두운 심연을 파고들고, 인간 영혼의 신성함을 무시하며,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자신의 지성을 악용하는 인물로 묘사한다. 칠링워스의 죄는 그의 비인간성에서 연유한 것으로, 그는 마치 신의 대행자인 양 목사를 수중에 넣고 자신의 뜻

21) Richard H. Fogle, *"Realms of Being and Dramatic Irony,"* in *The Scarlet Letter,* ed. Sculley Bradley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1962), p. 326.

대로 심판하려 한다. 그의 행위는 율법을 만들고 그것이 신의 뜻인 양 인간을 심판하려는데 악용했던 청교도 사회의 잔인성과 같다고 볼 수 있다. 복수 자체가 죄라기보다는 복수하는 수단과 방법에서 더 큰 죄를 짓는 것이다. 즉, 용서받을 수 없는 죄란 인간과 인간과의 유대관계를 깨뜨리고 신도 아랑곳하지 않으며, 자기주장만 옳다고 내세우는 지적 오만이며,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지성이 빚어낸 죄이다. 헤스터와 딤즈데일의 간음죄는 회개에 의해 용서받을 수 있으나 지성과 오만의 죄인은 회개를 하지도 않고 할 의사도 없기 때문에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 그는 "젊은 목사를 최면상태처럼 마음대로 통제하고 서서히 그의 파멸을 도모함으로써 인간 심성을 파괴하는 호손이 말하는 죄 중의 죄를 저지르는 진정한 악인"[22] 이다.

칠링워스는 목사의 병 증세와 성격이나 속성도 연구하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혀 목사의 내부에 숨어있는 뭔가 새로운 것을 찾기 위해 심혈을 기울인다.

> 딤즈데일의 육신의 병은 그의 감수성과 상상력 속에 원인이 있는 듯했다. 그래서 로저 칠링워스는-기술이 뛰어나고 친절하고 우정어린 의사였으므로-마치 어두운 동굴 속에서 보물을 찾는 사람처럼 환자의 가슴 깊숙이 파고들어 그의 사상을 음미하고, 기억을 들여다보고, 모든 것을 조심스러운 손으로 더듬었다. 이와 같은 탐색을 행할 기회와 자유가 있고, 더구나 그것을 규명해 낼만한 기술을 몸에 지닌 탐구자의 눈을 피할 수 있는 비밀이란 거의 없을 것이다. (109)

인간의 사상과 학문 등 모든 영역에 걸쳐 목사와 의견을 나누면서도 자신이 틀림없이 있다고 믿는 목사의 비밀이 밝혀지지 않자, 칠링워스는 목사

22) Spiller, *The Cycle of American Literature*, p. 64.

의 병의 실체에 대해 의혹이 생기고, 이를 파헤치고 싶은 억제할 수 없는 열정에 사로잡혀 그의 영혼 속으로 깊이 파고든다.

> 차차 깊이 파고들어감에 따라 조용하면서도 맹렬한 어떤 필연성이 무서운 매력을 가지고 노인을 사로잡고 말았기 때문에, 그는 그것이 명하는 바를 달성할 때까지는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없었다. 그래서 노인은 금을 찾는 광부처럼 이 불쌍한 목사의 가슴속을 파헤쳤다. 시체의 가슴에 달린 보석을 찾으려고 무덤을 파헤쳤으나 다만 썩어 가는 주검만을 발견할 뿐인 묘지에서 일하는 인부의 모습과 흡사했다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일지도 모른다. (113)

작가는 파랗고 불길하게 타오르는 용광로 빛 같은 그의 눈의 광채를 흉측한 불길의 번득임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악마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 그가 목사를 치료하기 위해 채취하는 약 또한 무덤에서 자란 풀들이다. 그는 이 풀들은 죽은 자의 심장에서 돋아난 무서운 비밀의 형태라며 목사도 빨리 괴로운 비밀을 털어 놓고 홀가분해지라고 강요한다.

> "이 흉측한 잡초만이 죽은 자를 기념하듯 나 있더군요. 그 죽은 자의 심장에서 돋아난 것일 겝니다. 살아있는 동안 고백했더라면 좋았을 어떤 무서운 비밀을 숨긴 채 묻혔기 때문에 그 비밀이 이런 모양으로 나타났는지도 모르죠...모든 죄의 고백을 요구하는 자연의 힘은 아주 대단한 것이어서, 보다시피 파묻힌 사람의 심장에서 검은 잡초가 돋아나와, 말없이 죽은 고인의 죄를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114~115)

칠링워스는 본래 진실을 추구하고 풍부한 지식과 학문적 교양을 쌓은 사람이었으나, 헤스터가 간음을 저지른 걸 알고는 그 배신감과 인간적 외로움이 뒤틀려 간부에 대한 복수심으로 불타오른다. 이에 자신의 남은 생

을 오로지 철저하고 잔인한 복수에 몰두함으로써 인간과의 진실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외로움과 스스로의 고립 속에 갇혀 방황하는 불쌍한 영혼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작가는 사악한 열정에 빠져 목사의 영혼을 조롱하는 칠링워스를 여러 번 악마의 모습으로 그리며 경고한다.

> 한마디로 로저 칠링워스 노인은 인간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악마의 일을 행하면 바로 그 자신이 악마로 화해 버릴 능력이 있음을 나타내는 뚜렷한 표본이었다. 이 불행한 노인은 7년이란 오랜 세월 동안, 고뇌에 가득 찬 한 인간의 마음을 끊임없이 분석하며 희열을 느끼고, 또한 그 사람의 불과 같은 고뇌에 기름을 끼얹는데 온갖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이와 같이 변모하게 된 것이다. (119)

이 불행한 의사는 자신은 본디 인간다운 마음을 지닌 사람이었으나 고통과 상처 때문에 악마가 되어 버렸다며 한편으로 자신의 변한 모습에 스스로 공포와 연민을 느낀다. 헤스터와의 만남에서 그는 자신은 목사로부터 너무나 잔인하게 상처받고 해를 입었기 때문에 증오심과 복수심에 사로잡혀 악마가 되었으며, 이 모든 것을 필연적 운명의 결과라며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시킨다. 그러나 자기를 이렇게 만든 간부에 대한 복수심은 그만큼 더 커가고, 이런 악에 찬 미움은 그로 하여금 좀 더 잔인하고 악랄한 복수의 형태를 띠게 만든다.

> "당신의 말이 옳소!" 로저 칠링워스는 무시무시한 가슴속의 불꽃을 헤스터 앞에 내보이며 외쳤다. "단순에 죽는 편이 나았을 것이오! 그 사람만큼 극심한 괴로움을 겪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것이오. 더구나 철천지한 원수가 보는 앞에서 말이오! 그 사람도 어떤 눈치를 채고 있소. 어떤 저주와 같은 힘이 자기 곁을 늘 따라다니는 것을 느끼고 있소. 일종의 영감으로-그 사람보다 예민한 인간을 하느님은 만들어내지 않았을 테니까-악의를 품은 자의 손이 마음의 끈

> 을 조종하고 있다는 것과 오직 죄악만을 노리고 찾아내는 눈이 자신 속을 꿰뚫어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소. 다만 그 눈과 손의 주인공이 나란 것은 알지 못하오." (150~ 151)

목사와 생활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던 칠링워스는 목사가 자신의 말에 과도하게 흥분하며 분노하는 모습을 보자, 경건한 목사인 체하는 딤즈데일도 한때 마음의 열정에 사로잡혀 영혼을 괴롭힐 만한 부당한 짓을 저질렀음에 틀림없다고 의심하며 더욱 철저히 그를 탐색해 나간다. 그는 자신이 가진 의학적 지식과 의술, 학문적, 사상적 지식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목사의 영혼을 분해하며 그의 영혼의 모든 비밀을 캐내고자 한다. 마침내 딤즈데일 목사가 자신이 그토록 찾았던 간부임을 확인하는데, 이는 자신의 끈질긴 탐색과 집념에서 온 커다란 성과였기에 광희하는 악마처럼 기뻐한다.

> 의사는 곧장 환자 앞으로 가서 그의 가슴에 손을 얹고 여태껏 의사에게도 보인 일이 없는 앞가슴의 옷을 풀어 젖혀 버렸다...방문을 나서는 순간 로저 칠링워스의 표정은 놀라움과 기쁨으로 거칠게 일그러졌다. 그 미친 듯이 기뻐 날뛰는 모습은 눈과 입으로만 다 표현할 수 없다는 듯이 강렬하게, 그 흉측한 몸 전체로부터 터져 나왔다. 힘껏 천장을 향하여 팔을 휘두르기도 하고, 마룻바닥을 발로 구르기도 하며 환희의 절정으로 치달았다. (121)

그는 목사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온갖 정성을 들이는데 건강이 회복되면 정신적 고문을 가해 목사가 괴로워하는 모습에 쾌락을 느낀다. 자신의 쾌락을 더 지속시키기 위해 목사의 병 치료에 더욱 정성을 기하고, 병 치료와 영혼의 고문을 반복하는 잔인한 복수 형태를 취한다. 그러나 자신의 정체를 철저히 감춘 채 악한 열정에 사로잡혀 복수의 결심을 굳혀감에 따

라 그의 모습도 점점 더 흉측해지고 추악하게 변모해간다.

> 로저 칠링워스의 얼굴은 그가 보스톤에 살면서부터, 특히 딤즈데일 목사와 동거하게 된 이후부터 놀랄 만큼 변모했다고 했다. 처음에는 조용하고 명상적이어서 그야말로 학자다운 풍모를 지니고 있었으나, 지금은 전에 없던 추악한 표정이 얼굴에 엿보이며, 그것은 보면 볼수록 더욱 뚜렷하게 눈에 띈다는 것이었다. (112)

칠링워스는 자신의 증오심과 분노, 고통을 감내하지 않고 오로지 복수심에 젖어 사악하고 추한 방법으로 인간의 영혼과 심성을 파괴하려 든 데서 일말의 동정심도 얻지 못한다. 와거너는 이성을 잃고 복수심에 불타는 그를 가리켜 "삶과 선의 근원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와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고문을 행하는 도덕적 괴물"[23]이라고 표현한다. 그의 상처입은 자존심과 비인간적인 호기심은 오로지 차가운 심장으로 옮겨가고, 그의 지력은 뚜렷한 진로를 발견하는 데 그것은 바로 목사에 대한 잔인하고 악랄한 복수의 형태이다.

> 이 불행한 노인에게 지금까지 줄곧 잠재해 오던 악의가 바야흐로 활동을 시작해, 어쩌면 과거의 어느 누구도 원수에게 그런 앙갚음을 한 적이 없을 정도로 강렬한 복수를 생각하게 하였다. 공포, 양심의 가책, 고뇌, 무익한 후회, 물리쳐도 되돌아오는 죄 많은 생각들, 이 모든 것을 털어놓게 할 수 있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친구가 되는 것이 최상의 복수인 것이다. 세상으로부터 감추어진 죄 많은 슬픔을 무엇이나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주는 큰 마음을 지닌 것처럼 보이는 냉혹하고 용서를 모르는 사나이 앞에 털어놓게 하는 것이다! 복수라는 부채가 이보다 더 적절하게 지불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23) Hyatt Waggoner, *"Three Orders: Natural, Moral, and Symbolic."* in *The Scarlet Letter,* ed. Sculley Bradley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1962), p. 337.

생각될 정도의 고민을 그에게 주게 될 것이다! (122)

목사의 실체를 확인한 칠링워스는 주도면밀한 계획 하에 그의 가슴을 파고들며, 온갖 잔인한 방법으로 그의 정신과 영혼을 마음대로 뒤흔들고 고문한다. 그는 목사가 자신의 고문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모습에 쾌락을 느낀다. 또한 자신의 쾌락을 연장시키기 위해 목사의 병을 정성껏 치료하면서도 목사의 영혼을 파멸로 몰고 가기 위해 치밀하게 복수를 진행시킨다.

> 그 계시의 도움으로 의사는 딤스데일 목사와의 모든 관계에 있어 목사의 외양뿐만 아니라, 영혼 내부까지도 눈앞에 환히 드러나 그의 모든 움직임을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 이후부터 노인은 목사의 세계에 관찰자일 뿐 아니라, 그 세계의 주역이 되었던 것이다. 그는 마음대로 목사를 조종할 수 있었다. 목사에게 심각한 고민을 주어 흥분시키고 싶으면, 희생자는 언제나 고문대위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으므로 고문대를 조종하는 손잡이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있기만 하면 되었다.-의사는 그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갑자기 목사를 공포에 떨게 만들고 싶으면, 마술사가 지팡이를 휘두르는 대로 나타나는 기분 나쁜 환영들처럼 죽음의 환영, 치욕의 환영 등 수많은 환영이 나타나 목사 주위에 떼지어 몰려들어 그의 가슴을 손가락질 하는 것이었다! (122)

그는 신이 내려야 할 벌을 자기가 대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헤스터에게 탁월한 의술과 정성으로 죽어가는 딤즈데일의 병을 고치는 자신의 행위를 선이라고 합리화하는 교만함을 보인다. 그러나 칠링워스는 목사에 대한 복수에 혈안이 되어 목사의 가슴 속 깊이 파고들어갈 때 자신 또한 상처의 희생양이 되고 있으며, 더 크게 상처받고 있는 게 자신임을 깨닫지 못한다.[24] 목사에 대한 복수 방법이 잔인해질수록, 자신의 고문으로

목사의 영혼이 번민에 빠져들수록 칠링워스의 영혼은 목사보다 더 상처받고 타락하여 파멸해 간다.

뉴잉글랜드 최대 경축일에 설교를 끝낸 목사가 처형대에서 죄를 고백하려 하자 칠링워스는 이를 만류한다. 그 이유는 목사가 대중 앞에서 고백을 해버리면 자신이 직접 그에게 고통과 심적 고문을 가해 처벌할 수 없으며, 목사가 살아있어야 자신의 불타는 복수도 계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의 이런 잔인한 의도는 목사의 영혼을 서서히 조임으로써 좀 더 고통스럽게 파멸시키려는 악마적인 습성이라 하겠다. 그는 목사가 죽음과도 같은 처형대에 올랐을 때도 일말의 동정심이나 후회 없이 복수의 대상이 자신의 손아귀에서 빠져나가 그곳에 선 것에 분노한다. 격심한 고통의 고비를 넘기며 대중 앞에서 죄를 고백한 후 목사가 승리의 얼굴을 한 채 쓰러지자 칠링워스는 인간 영혼에 대한 신성함이나 존경심은 없고 단지 허탈감에 빠져 "기어코 내게서 도망쳤구나"(221)라고 되풀이 말하며 안타까워한다. 그는 자신의 생의 목적을 오로지 목사에 대한 복수에 두었기에 복수 대상을 잃어버리자 생의 지표와 방향까지 잃어버려 생명과 지능이 남김없이 사라져 버린 것처럼 몰락하고 만다.

> 딤스데일 목사가 죽은 뒤 로저 칠링워스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노인의 모습에 나타난 변화만큼 놀라운 것은 없었다. 그의 모든 기력이-생명력이나 지력이 모두 한꺼번에 빠져 버린 것 같았다. 마치 뿌리를 뽑힌 잡초가 뙤약볕에 시들 듯이 말라 버려 거의 사람 눈에 띄지 않을 정도가 되었다. 이 불행한 사나이는 인생의 보람을 빈틈없는 복수를 실행하는 데 두었으며, 그 완전한 승리와 목적 달성이 끝나고 더 이상 그 사악한 지침을 지탱할 대상이 없어져 버리자-즉 이 지상에서 행할 악마의 작업이 없어지게 되자 이 인간성을 잃은 사나이가 할 수 있는 일은 주인인 악마가 일거리를 장만해 주고 그

24) Waggoner, *Hawthorne: A Critical Study*, p. 143.

만큼의 보수를 지불해 주는 곳으로 옮겨가는 일밖에 없었던 것이다. (224~225)

자신의 복수와 그로인한 승리감을 보다 오래 즐기기 위해 목사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집요하고도 치밀한 계획 하에 목사의 영혼을 괴롭히는 칠링워스의 죄는 인간의 마음을 모독한 죄이다. 그는 빠져나간 간부에게 고통을 주려는 마음으로 불타올라 궁극적으로 헤스터와 적이 되는데, 그의 악마적인 질주는 헤스터가 대항하고 있는 엄격한 청교도 정의의 가장 냉혹한 면을 구체화한다.[25] 그는 인간에 대한 유대감과 신에 대한 경외감이 결여되어 신만이 할 수 있는 인간을 심판하려 한다. 호손은 인간에 대한 사랑, 진실, 용서를 외면한 채 자신의 복수만을 추구하는 칠링워스를 통해 진실을 외면한 채 엄격한 도덕률만을 요구하는 청교도 사회를 고발하고 있다고 하겠다.

25) Stubbs, p. 413.

Ⅳ. 구원의 길

호손에게 죄는 지상의 인간을 공통 운명으로 묶어 주는 연결고리로서 모든 인간이 회피할 수 없는 운명적 속성이었다. 즉 인간의 속성인 죄는 인간의 도덕적 발전을 위한 조건이라는 것이다. 호손은 원죄를 인간의 본성과 관련된 것으로 받아들였으며, 죄로 인해 인간은 유대관계를 맺고 서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보았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간의 타락은 불가해한 인간 조건으로 죄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고통을 통해 선에 다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주홍글자』의 인물들은 모두 죄와 관련되어 있으며, 타락한 현실 속에서 죄의식과 고통을 겪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 구원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간음죄로 인해 사회적으로 고립된 생활을 하는 헤스터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죄를 인정하고 극복하고자 하는 성찰의 시간을 갖는다.

> 나는 이 고장에서 죄를 지었다. 그러므로 지상에서 받을 형벌은 이곳에서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여 날마다 받아야 할 치욕의 고통이 언젠가는 나의 영혼을 깨끗이 씻어 줄는지도 모르며, 잃어버린 순결과는 색다른 순결이 생겨나서 결국 고난 끝에는 좀 더 성녀같은 여자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그녀의 생각이었다. (73)

그녀는 자신이 죄를 지은 곳에서 형벌을 받으며 치욕의 고통을 견디는 것이 자신의 영혼을 정화시켜 순결해 질 거라는 믿음을 가진다. 오만하고 야성적이었던 그녀는 오랜 속죄의 고행을 거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보살핌으로써 사회로부터 호감을 사게 되고 시련과 고통을 감내함으로써 성숙된 인격을 갖춰나간다. 그녀는 사회에 고통의 대가나 동정을 강요하지 않고 세상의 따돌림을 받고 사는 동안 순결한 생활을 함으로써 그녀를

멸시하고 냉대했던 사회로부터 점차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된다. 여성으로서의 특징을 모두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에겐 친절하고 병자와 괴로운 이에겐 힘과 위안을 주는 선행을 아무런 대가없이 실천하는 동안 청교도 사회는 그녀를 따뜻하게 바라본다. 그녀의 따뜻하고 포용력 있는 성격은 “자선의 수도녀”란 이름을 갖게 하고, 간음의 상징으로 가슴에 달린 수치의 표식을 선행의 상징으로 바꾸어 놓는다. 넘치는 정열로 인하여 죄를 저질렀으나, 온갖 시련과 고통, 내적 갈등을 겪으면서 인격적 성숙을 이루는 헤스터는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는 자비로운 모습으로 정화됨으로써 구원의 실마리를 찾는다. 카펜터는 헤스터를 음울한 당시 청교도 사회에 새로운 삶에 대한 가치관과 참된 미국인상을 제시하는 여인이라고 설명한다.

> 헤스터는 황량한 신세계에 새로운 삶에 대한 가치관과 이상을 실현하기위해 자기 소신대로 행동하는 참된 미국인의 이상을 실현한다. 호손이 살았던 19세기 청교도 시대에서 이런 이상은 실제로 실현되었다. 좀더 자유로운 법을 가진 현대 사회에서도 그녀는 잔인하고 복수심에 불타는 남편과 이혼하여 그녀의 애인과 행복하게 살길 원했을 지도 모른다.[26]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죄로 사회로부터 낙인찍혀 추방당하는 가혹한 청교도 사회의 규범을 감수하면서 내면적, 정신적 갈등과 고통을 이겨내고 인격적 성숙을 이룬다. 사회의 제도나 규범보다 자연법칙에 순응하고자 했던 그녀는 죄의 대가를 치루면서 오히려 도덕적 성숙을 이루게 된다. 이는 달리 보면 당시 청교도 사회에 대한 헤스터의 승리라고 볼 수 있다.

헤스터는 청교도 사회와 외적인 갈등과 고립을 겪지만, 딤즈데일은 고

26) Carpenter, p. 316.

백을 하지 못함으로써 내면적인 갈등과 죄의식에 빠지고 더 참혹한 참회의 길을 가게 된다. 도덕적 용기와 진실함이 부족하여 위선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현실은 그의 종교적 죄의식과 양심의 가책을 더욱 깊게 하고 정신적 고통은 영혼을 파멸로 이끈다. 그는 여러 번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자 하나 자신의 죄를 드러내지 않는 형태의 참회를 함으로써 자신의 숨겨진 죄 외에 또 다른 죄를 짓는다. 자신이 진실되지 못하다는 사실은 그의 유일한 현실이고 정체성인 것이다.[27]

가혹한 고행의 시간을 거친 후 그는 마침내 대중과 신 앞에서 공개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는 영혼의 구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청교도인의 자세이며, 위선과 허위를 벗고 진실을 추구함으로써 죄의식과 도덕적 고립에서 벗어나는 길인 것이다. 스텁스(John C. Stubbs)는 진정한 참회로 이뤄진 이 고백을 용기있는 것이라 지적한다.

>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마지막 처형대 장면은 딤즈데일의 승리의 순간이다. 축제일 설교에서, 그는 인간 조건과 신성함 간의 관계에 대해 "불꽃의 언어"로 이야기한다. 호손은 그의 목소리의 효과를 묘사하고 있다. "모든 음악과 마찬가지로 그의 목소리는 인간의 마음의 언어인 정열과 비애, 그리고 고귀한 정서와 부드러운 감동을 전해주고 있다." 딤즈데일은 자기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마음의 언어로 이야기할 수 있다. 동시에 그는 신의 영광을 얻음에 절망하지 말라고 대중들에게 말한다. 그의 설교는 그의 목소리의 열정과 비애에서 나온 희망의 말이다. 설교에 이은 교회당 밖에서의 고백은 그 설교의 극적인 재상연이다. 그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희망을 가진 채 신 앞에서 참회한다. 그의 행동은 주위에 있는 다른 죄지은 타락한 인간에게 보내는 메시지이다.[28]

27) Brodhead, p. 57.
28) Stubbs, p. 420.

그는 마지막까지도 함께 영생을 누릴 것을 호소하는 헤스터에게 그걸 바라는 것은 헛된 것이라며, 자신에게 고통과 고뇌를 주고 고백을 통해 파멸에서 구원해주신 하느님의 자비를 찬양하며 영혼의 구원에 대해 이야기 하고 숨을 거둔다.

> "우리가 깨뜨린 율법! 지금 이렇게 무참하게 폭로된 죄악! 이것만은 당신도 언제나 염두에 둬 주오! 나는 두렵소! 두렵소, 헤스터! 우리가 하느님을 잊어 버렸을 때, 서로의 영혼에 대한 존경을 깨뜨려 버린 그때 이미 우리가 저 세상에서 다시 만나 영원하고도 순결하게 결합되고자 하는 희망은 불가능한 일이 되어 버렸소! 하느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실뿐 아니라 자비로운 마음을 지니고 계시오! 특히 내가 고뇌에 허덕일 때 그 자비심을 보여 주셨소. 나의 가슴에 이 타들어가는 듯한 책고를 주신 것도 그러하오! 여기 있는 음흉하고 무서운 노인을 시켜 그 책고를 언제나 빨갛게 타오르게 하신 것도 그러하오! 나를 이곳에 오게 하여 많은 사람들 앞에서 승리와 치욕을 짊어지고 죽게 하신 것도 그러하오. 이런 고통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부족했다면 나는 영원히 파멸해 버렸을 것이오! 하느님의 이름을 찬미할지어다!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222)

호손은 죄가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다고 없어지거나 감춰지는 게 아니라 죄가 드러났을 때보다 더 큰 고통과 죄의식, 번민에 휩싸이게 된다는 것을 목사의 삶을 통해 조명하고자 했다. 딤즈데일은 사회에서 추방된 헤스터의 품에서 최후를 맞이함으로써 엄격한 율법에 얽매인 청교도 사회의 냉혹함을 고발하고 인간에 대한 사랑과 포용, 진실한 참회를 강조하고 있다. 호손은 청교도 사회의 계율이나 규범에 얽매어 위선과 허위 속에서 고통의 삶을 산 딤즈데일의 생을 하나의 우화로 만들어 죄지은 인간에 대한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칠링워스는 헤스터와 딤즈데일의 간음의 일차적 피해자이면서 복

수심으로 인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되는 인물이다. 아내와 간부에 대한 분노로 잔인한 복수를 하는 그는 목사의 영혼을 파멸시키면서 추악하게 변해간다. 그가 악마의 모습으로 점차 변해가는 것은 복수심으로 인한 스스로 빚어낸 결과라 할 수 있다. 호손은 칠링워스를 통해 인간성을 상실한 청교도 사회의 죄에 대한 엄한 처벌과 제도에 치우친 면을 고발하고 있다.

그러나 작가는 칠링워스가 악마의 화신으로 변한 모습을 강조하면서도 소중하고 값지게 살았던 과거의 학자다운 모습을 묘사하면서 그에게 어느 정도의 동정심을 베푼다. 작가는 칠링워스도 희생자임을 상기시키면서 지적 오만으로 인해 영혼의 타락을 겪은 그에게 자비를 베풀며 진정한 참회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불쌍한 영혼의 소유자였던 또 다른 희생자 칠링워스는 그의 막대한 재산을 원수의 딸인 펄에게 남기는데, 이는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있는 모습이라 볼 수 있다. 호손은 복수의 대상이 사라져 버리자 고독한 지옥으로 빠져든 칠링워스를 위로하며 사랑과 미움이 근본적으로 동일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 사랑과 미움이 극한에 이르면, 고도의 친밀과 마음의 상통이 필요하게 된다. 양자의 경우가 다 인간이 자신의 애정과 정신생활의 양식을 상대방에게서 구하게끔 만든다...그러므로 철학적으로 생각하면 애증이라는 두 가지 격정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며, 사랑이 때때로 천국의 광명 속에 나타나는 것에 비해 증오는 어둡고 침침한 빛 속에 나타난다는 점만이 다른 뿐이다. 노의사도 목사도-서로 상대방의 희생자였지만-영혼의 세계에서는 지상에서 품어 오던 증오와 반감이 뜻밖에도 만족스러운 애정으로 변했음을 알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225)

작가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칠링워스를 또다시 청교도의 엄격

한 도덕률로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죄를 저지를 수 있으며, 죄 자체를 처벌하기보다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음을 상기시키고 있다. 이처럼 호손은 인간의 구원은 신에 의에 예정된 것이 아닌, 죄에 대한 진실한 속죄와 인간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용서에 있음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JEJU NATIONAL UNIVERSITY
제주대
SINCE 1952

V. 결 론

호손은 모든 인간의 내면에는 죄와 악이 잠재되어 있으며, 처한 환경에 의해 그 죄가 표출된다고 보았다.[29] 그는 모든 인간은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엄한 단죄보다는 인간과 죄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요구한다. 과거 청교도 조상들의 비인간적인 박해와 행위에 대해 깊은 죄의식을 가졌던 호손은 엄격한 계율과 규범에 따라 죄의 처벌에만 치중했던 청교도주의를 비판하며, 『주홍글자』를 통해 자신의 인본주의적 도덕관을 제시한다. 그는 인간이 짓게 되는 죄는 도덕적 성숙을 이루기 위한 계기로, 갈등과 고통의 과정을 겪으면서 인간과 신에 대해 이해하고 회개함으로써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이 작품을 통해 강조한다.

호손은 헤스터나 딤즈데일처럼 개인의 정열적인 사랑에 의해 자신들의 율법을 어겼다고 이들을 가혹하게 처벌하고 사회로부터 소외시키는 행위는 어떤 점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직시하였다. 특히 영국의 부패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청교도들의 노력이 인간의 근본적인 본성 자체를 죄악시하게 되고, 엄격한 도덕적인 삶이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게 되리라는 청교도들의 기대가 딤즈데일 목사가 겪는 갈등에서처럼 지나친 과신에서 비롯된 위선에 불과함을 비판한다.

호손은 헤스터가 지은 간음죄 자체보다는 편협하고 엄격한 청교도 사회의 처벌로 인해 그녀가 겪게 되는 사회적 고립과 갈등에 대해 그리고 있다. 그녀는 간음죄를 저지름으로써 사회로부터 추방당해 청교도 법정이 선고한 대로 청교도 율법에 상응하는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내면세계에서 그녀는 교리와 형식에 치우친 사회에 대항하며, 인

29) Hawthorne, "*The American Notebook,*" in *The Portable Hawthorne*, ed. Malcolm Cowley (New York: Penguin Books, 1982), p. 617.

간의 감성과 심성이 존중되는 자연의 법칙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후회나 청교도식의 죄의식은 느끼지 않는다. 그녀는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생활하였으나, 자신의 상황을 의연히 극복해나가고 어렵고 약한 자들을 도와주는 자선과 사랑의 활동을 하면서 자신에게 손가락질하던 청교도 사회로부터 호의와 존경까지 받게 된다. 고통을 통한 그녀의 용기있는 태도와 자비로운 생활은 자신의 영혼을 들여다보는 도덕적 성숙을 이루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가혹한 처벌을 집행하려던 청교도 사회를 오히려 정화시키게 된다.

딤즈데일은 자신의 연약함과 용기부족으로 죄를 감춤으로써 도덕적 고립에 빠지고 목사이면서도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찬 생활을 하면서 더 큰 고뇌와 죄의식에 시달린다. 그는 정열의 죄를 고백하지 못한 고통으로 자기학대와 고행을 이어가지만, 공개 고백과 진정한 참회에 이르지 못함으로써 더 깊고 고통스런 삶을 살게 된다. 자신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위선과 오만의 죄까지 범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숨겨온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자신에게 지워 진 고통과 짐을 벗어 버리고 숨을 거둔다. 영혼의 구원 문제에 고뇌하던 딤즈데일은 이 고백으로 구원의 길로 향하게 되고, 교리와 형식에 치우친 청교도 사회에 신의 자비와 진정한 신앙의 길을 제시하게 된다.

칠링워스는 폭넓은 학문적 지식과 냉철한 이성을 가진 학자지만, 아내의 간부인 목사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 악마의 모습으로 변한다. 그는 인간에 대한 이해와 사랑보다는 죄의 처벌에만 관심을 가짐으로써 엄격한 윤리와 규율만을 강조하는 청교도 사회를 대변하고 있다. 호손은 칠링워스를 "악인, 악마(black man)" 혹은 “검은 청교도인(black Puritan)" 으로 그리면서 청교도 사회와 그를 동일시하고 있으며, 인간에 대한 따뜻한 포용과 용서가 결여된 둘 다를 비판하고 있다. 그는 복수심에 사로잡혀 잔

인하게 영혼을 파헤치고 고문을 가하면서 인간 영혼의 신성함을 짓밟고, 신만이 할 수 있는 인간을 직접 심판하려 함으로써 용서받지 못할 지적 오만의 죄를 범한다. 그러나 작가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그에게도 자비와 동정을 베푸는데, 이는 냉혹한 청교도 사회 속에서도 작가가 지녔던 인본주의 사상을 보여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작가는 죄 자체에 대한 문제보다는 죄의식이 미치는 심리적 영향을 조명하면서 고통과 회개를 통한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 호손은 윤리와 도덕만을 내세우며 신의 계시라는 미명하에 인간에 대한 이해를 뒤로한 채 엄격한 규율과 죄의 처단만을 중요시 했던 편협한 청교도적 삶을 비판하고 따뜻한 인간관계를 통한 진실한 삶과 인간성 회복을 강조하였다. 결국, 작가는 불완전한 “인간의 연약함과 슬픔(a tale of human frality and sorrow)"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은 누구나 어떤 형태로든 죄를 범할 수 있으며, 계율을 통한 단죄보다는 용서와 사랑,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를 통해 구원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Bibliography

1. Text:

Hawthorne, Nathaniel. *The Scarlet Letter*. New York: Penguin Books, 2003.

2. References:

Abel, Darrel. "*Hawthorne's Hester.*" In *The Scarlet Letter*. Ed. Sculley Bradley.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1962.

Brodhead, Richard H. *Hawthorne, Melville, and the Novel.*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6.

Bunge, Nancy L. *Nathaniel Hawthorne: A Study of the Short Fiction.* New York: Twayne Publishers, 1993.

Carpenter Frederic I. "*Scarlet A Minus.*" In *The Scarlet Letter*. Ed. Sculley Bradley.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1962.

Chase, Richard. *The American Novel and Its Tradition.*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57.

Dryden, Edgar A. *Nathaniel Hawthorne: The Poetics of Enchantment.*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1977.

Fogle, Richard. "*Realms of Being and Dramatic Irony.*" In *The Scarlet Letter.* Ed. Sculley Bradley. New York: W. W.

Norton Company, 1962.

Gerber, John C. Ed. *Twentieth Century Interpretation of The Scarlet Letter.* New Jersey: Prentice Hall, 1968.

Greiner, Donald J. *Adultery in the American novel: Updike, James, and Hawthorne.* Columbia, S. C.: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Press, 1985.

Hawthorne, Nathaniel. "*The American Notebook.*" In *The Portable Hawthorne*. Ed. Malcolm Cowley. New York: Penguin Books, 1982.

James, Henry. "*Densely Dark, with a Spot Vivid Colour.*" In *The Scarlet Lette*r. Ed. Wang-Rok Chang. 서울: 신아사, 1987.

Johnson, Claudia J. *Understanding The Scarlet Letter.* West Port, Conneticut: Greenwood Press, 1995.

Lawrence, D. H. "*Nathaniel Hawthorne and The Scarlet Letter.*" In *The Scarlet Letter*. Ed. Wang-Rok Chang. 서울: 신아사, 1987.

Levin, David. "*The Scarlet Letter.*" In *The Scarlet Letter*. Ed. Wang-Rok Chang. 서울: 신아사, 1987.

Martin, Terence. "*The Scarlet Letter.*" In *The Scarlet Letter*. Ed. Wang-Rok Chang. 서울: 신아사, 1987.

Mcneill, Agnes. *Hawthorne: Calvin's Ironic Stepchild*. Ohio: Kent State University Press, 1985.

Sandeen, Ernest. "*The Scarlet Letter as a Love Story.*" In *The Scarlet Letter*. Ed. Wang-Rok Chang. 서울: 신아사, 1987.

Spiller, Robert E. *The Cycle of American Literature.* New York:

The Free Press, 1967.

Spiller, Robert E. Ed. *Literary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 1978.

Stewart, Paul R. *Cliff Notes on Hawthorne's The Scarlet Letter.* Singapore: John Wiley and Sons(SEA) pte. Ltd., 1986.

Stubbs, John C. "*A Tale of Human Frailty and Sorrow.*" In *The Scarlet Letter.* Ed. Sculley Bradley.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1962.

Waggoner, Hyatt H. *Hawthorne: A Critical Study.* Massachusetts: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1971.

_____. "*Three Orders: Natural, Moral, and Symbolic*" In *The Scarlet Letter.* Ed. Sculley Bradley.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1961.

박영의. 「주홍글씨에 있어서 Hester Prynne의 변천 과정」.『영어영문학연구』제2집. 한국영어영문학회 충청지부 (1969).

박익두.『다양을 위한 변모: Hawthorne의 예술적 원리와 실제』. 서울: 한신문화사, 1982.

전입근.『미국소설의 발달』. 서울: 한신문화사, 1987.

천승걸.『미국 문학과 그 전통』. 서울: 서울대 출판부, 1985.

한국근대영미소설학회.『19세기 미국소설 강의』. 서울: 신아사, 2003.

<Abstract>

Aspects of Sin and Ways to Salvation in "*The Scarlet Letter*"

Jung-Mi Kim
(Supervised by Professor Jong-Min Byun)

Major in English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study the aspects of sin and the way to salvation in *The Scarlet Letter*. Nathaniel Hawthorne was brought up in the tradition of Puritanism, but he was critical the rigidity of the strict puritan society. He always felt that the religious system of puritanism was hard, cold, and confined. The spatial setting of his works is mainly New England, but he took shame his calvinistic ancestors of New England. The central theme of most of his stories is not sin as a theological problem, but rather the psychological effect of sin on the lives of the early colonists.

In *The Scarlet Letter*, Hawthorne showed some different aspects of sin by the use of three main characters, Hester Prynne, Arthur Dimmesdale, Roger Chillingworth. Hester commits adultery, a sin of passion. Her revealed sin makes her wear a scarlet letter "A" on her bosom and isolate herself from puritan society. But she is kind to the poor, helps the sick, and comforts the afflicted. Her unselfish life and good qualities purify her sins. She gets to moral growth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February, 2007.

and purifies a hypocritical puritan society.

Dimmesdale, the minister, couldn't confess his sins because of cowardice. His social reputation and authority prevent him from confessing his sin in public. Dimmesdale, the hypocrite, is filled with remorse, as he keeps reliving in his mind his guilt. He suffers from remorse and hypocrisy. He has had penance enough but has never had penitence. Finally, he makes a public confession and dies, believing he has paid the price for his sin through his own suffering.

Roger Chillingworth, a miserable soul, conceals his own identity as Hester's husband and devotes himself to revenge. He becomes a "fiend" as he pursues his psychological revenge on Dimmesdale. He tortures Dimmesdale's soul and violates the sanctity of a human heart. This cold, speculative, intellectual man commits unpardonable sins which eventually destroy himself. Hawthorne describes Chillingworth as black puritan, but he may be merciful even to the unpardonable sinner, Chillingworth.

In conclusion, Hawthorne tried to explore the psychological influence of guilt upon human beings. Hawthorne seems to tell us that humans can be saved from sin through true repentance, forgiveness and love.